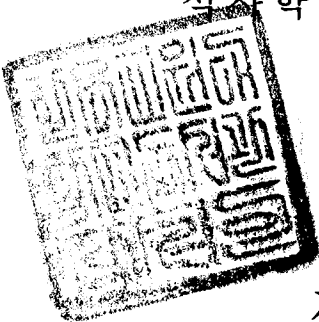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88/2030

PM
1109
8-20-82

제주도 방언의 자리토씨에 관한 연구

— 표준어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f Case Endings on the Cheju Dialect

— Centered on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Standard Language and Cheju Dialect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허기추

158280

1988년 12월

제주도 방언의 자리토씨에 관한 연구

—표준어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중심으로—

A Study of Case Endings on the Cheju Dialect

—Centered on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Standard Language and Cheju Dialect—

지도교수 : 성 낙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국 어 교 육 전 공

허 기 추

1988년 12월

목 차

국문 요약	i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3. 자료선정	8
II. 자리토씨의 분류	11
1. 자리(格)의 설정	11
2. 자리토씨(格助詞)의 분류	17
III. 자리토씨의 걸림 관계와 그 기능	20
1. 임자자리토(主格助詞)	20
2. 기움자리토(補格助詞)	28
3. 부림자리토(目的格助詞)	32
4. 매김자리토(冠形格助詞)	39
5. 어찌자리토(副詞格助詞)	45
6. 부름자리토(呼格助詞)	75
IV. 결 론	81
참고문헌	85
영문요약	91

국 문 요 약

제주도 방언의 자리토씨에 관한 연구

— 표준어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중심으로 —

허 기 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성 낙 수)

본고는 제주도 방언가운데 월조각(文章成分)으로서의 일정한 자리(格, Case)에 쓰이는 자리토씨(格助詞)들의 분류, 실현 환경, 기능적 의미, 통사적 특징 등을 표준어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상이점을 살펴 보았다.

첫째 본방언의 자리토씨는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은 기본문형(基本文型)에 관여하는 임자자리토(-이/-가), 기움자리토(-이/-가), 부림자리토(-을/-르)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은 기본문형에 관여하지 않는 매김자리토(-에/-이/-스), 어찌자리토(본문 참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은 홀로조각(獨立成分) 형성에 관여하는 부름자리토(-아/-야, -양/-예)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본방언의 자리토씨는 그 형태가 비록 [+표준어]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높임]의 형태(-께, -께서, -이시여/-시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표준어], [-표준어], [±표준어] 등에 의해 분류된 본방언의 형태들은 [+표준어]의 실현환경과 [-표준어]의 실현환경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표준어]의 실현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김자리토 { -이 / -스 }, 어찌자리토 { -예 / -의 / -디 }, { -상에 }, { -ㄴ라 }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본방언의 자리토씨의 의미·통사적 특성은 선행체언과 풀이씨와의 걸림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한정된 선행체언과 풀이씨를 요구하는 { -상에 }, { -ㄴ라 } 등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 -신티 / -안티 / -아피 }, { -드레 / -레 } 등은 표준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본방언에서는 무표지의 체언이 일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유표지 (Case Mark)가 첨가되면 어색해지거나 [+강조]의 의미를 띠게 된다. 그래서 특별한 발화상황이 아닌 이상은 임자자리토와 부림자리토의 중출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 본 논문은 1988년 1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주도 방언(이하 본방언)의 자리토씨(格助詞)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자리(格, Case),¹⁾ 월조각(文章成分), 월의 짜임새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언어발달과 언어지식의 습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방언의 자리토씨의 문법적인 현상을 표준어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상이점을 밝히는 일은 제주도 학생들의 언어지식과 언어발달을 조사·연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1. 제주도 방언의 자리토씨는 이음법(接續法)에서 쓰이는 씨끝(語龜), 또는 풀이씨(用言)의 줄기(語幹)에 첨가되는 도움줄기(補助語幹)²⁾ 등과 는 달리 방언 특유의 어형으로 실현될 뿐만

1) 자리(格)는 라틴어 'Casus'에서 유래한 영어 'Case'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일본문법에서는 이것을 '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 학교문법(學校文法)에서는 도움줄기를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라고 하며, 이에 는 '낮춤(謙讓)', '높임(尊稱)', '때(時間)' 등의 도움줄기만이 해당된다. 여기서 하임(使動), 입음(被動), 힘춤(強勢) 등의 도움줄기가 선어말어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이것들이 풀이씨(用言) 줄기의 일부가 되어 뒷가지(接尾辭)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라, 표준어의 어형으로 실현되는 것도 있다. 여기서 표준어의 어형으로 실현되는 것은 기본문(基本文)³⁾을 구성하는 임자자리토(主格助詞), 기움자리토(補格助詞), 부림자리토(目的格助詞)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기본문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 어찌자리토(副詞格助詞)나 부름자리토(呼格助詞)의 일부도 표준어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나, 이것은 그것들의 부분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방언의 자리토씨는 기본문에 관여하는 자리토씨일수록 표준어의 어형으로 실현되고 있고, 기본문에 관여하지 않는 자리토씨일수록 방언 특유의 어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것을 의미자질(意味資質)로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이 된다.

<표 1> 본방언의 자리토씨 형태의 실현 양상

월의 의미자질 자리토씨의 의미자질 종류		실현형태의 의미자질		[+ 표준어]	[- 표준어]
[+기본문]	임자자리토			+	-
	기움자리토			+	-
	부림자리토			+	-
[-기본문]	매김자리토			-	+
	어찌자리토			-	+
	부름자리토			[± 표준어] ⁴⁾	

3) 기본문은 [+단문], [+긍정문], [-변형]의 통사적 특징을 지닌 월을 말한다.

4) 본방언의 부름자리토는 [+높임], [±높임]일 때는 방언 특유의 어형으로 실현되고 있으나, [-높임]일 때는 표준어의 어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것은 [+높임]의 부름자리토가 특수한 발화조건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비해, [-높임]은 일반적인 발화조건에서 실현되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표 1 >은 본방언의 자리토씨의 형태가 [+표준어]로 실현되느냐 [-표준어]로 실현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부름자리토를 제외하면, [+기본문]에 관여하는 자리토씨는 [+표준어]의 어형으로, [-기본문]에 관여하는 자리토씨는 [-표준어]의 어형으로 각각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표준어의 정책적 보급으로 매김자리토나 어찌자리토의 자리에 표준어의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발화에서 흔히 발견된다. 그래서 현재 매김자리토의 자리에 { -의 }, ‘ 닿는 데 (到達) ’를 뜻하는 어찌자리토의 자리에 { -에게 / -한테 }, ‘ 방향 ’을 뜻하는 어찌자리토의 자리에 { -으로 / -로 } 등이 채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본방언의 토박이 화자들이 자신들이 쓰고 있는 방언과 그 방언에 대응되는 표준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형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토박이 화자 (native speaker)들의 언어사용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들 수 있다.

- (1) a. 가이안틱 편지 보내언?
- b. 그 아이 한테 편지 보냈어?
- c. 그 아이안테 편지 보냈어?
- d. 그 아이한틱 편지 보냈어?

(1a)는 본방언을 쓰는 화자의 정확한 발화이고, (1b)는 표준어를 습득한 화자의 발화이고, (1c)와 (1d)는 본방언과 표준어의 어형이 혼합된 발화이다. 여기서 (1c)와 (1d)와 같은 발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표준어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지 못한 이

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방언의 어형과 표준어의 어형이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⁵⁾ 방언에 익숙한 화자들이 음운과 형태소에 대한 지식이 없이 막연하게 표준어의 음성을 들었을 경우 (1c)와 (1d)와 같은 발화를 낼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방언을 보존함과 동시에 표준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방언의 독특한 어형에 대응하는 표준어 형태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발화된 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그 형태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거기에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1c)와 (1d)가 규범에 어긋난 자리토씨가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법적인 월이 되는지를 아는 것 등이다. 이것은 자리토씨의 형태·음운론적 실현환경, 기능적 의미, 통사적 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2. 본방언의 자리토씨에 관한 연구 가운데 위와 같은 취지로 이뤄진 논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본방언의 자리토씨에 관한 연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a.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리토씨의 형태론적 구성에 중점을 두는 연구

b. 전통·구조주의의 방법으로 자리토씨의 용법, 기능, 배열관

5) 본방언과 표준어의 어형이 비슷한 예는 자리토씨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씨(品詞) 전반에 걸쳐 있다.

계에 중점을 두는 연구

c. 변형생성이론의 방법으로 토씨들의 실현형태, 통사·의미
기능에 중점을 두는 연구

(2a), (2b)에서는 ‘자리토씨’라고 하고, (2c)에서는 ‘토씨’라고 한 것은 (2c)가 자리 표지(格標識)의 토씨와 월늘림 표지(文擴張標識)의 토씨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희 :1983) 본방언의 자리토씨 전반을 다룬 연구로서 (2a)에 중점을 둔 연구는 이승녕(1985)의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를 들 수 있고, (2b)에 중점을 둔 연구는 강근보(1978)의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를 들 수 있으며, (2c)에 중점을 둔 연구는 강정희(1983)의 “제주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밖에 자리토씨를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로서 (2a), (2b)에 중점을 둔 연구는 강근보의 “屬格 { -ne }의 研究 (1976)”와 “濟州島方言의 接尾辭 研究(1977)” 등을 들 수 있다.⁶⁾

6) 자리토씨(格助詞)에 관련된 논문은 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더 들 수 있다.

강정희(1980), “濟州方言의 處格 ‘-디’에 관한 一考察”, 「方言」 4,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p.75 ~ 92.

_____(1982), “제주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 중세국어와의 대응을 중심으로 -, 「國語學」 11, 國語學會, pp.71 ~ 88.

강영봉(1985), “濟州島方言의 後置詞에 관한 研究”, 「國語教育論叢」 第2號,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문순덕(1987), “濟州島方言의 形態素 ‘-서’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 논문」, 濟州大學校 大學院.

이 연구들은 모두 방언의 독자적인 언어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들은 올바른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본방언의 언어지식의 체계를 세우는 일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제주도 방언 가운데 월조각으로서의 일정한 자리(格, Case)에 쓰이는 자리토씨들의 분류, 실현환경, 의미, 통사적 특성 등을 표준어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상이점을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제주도 방언가운데 월조각(文章成分)으로서의 일정한 자리(格)에 쓰이는 자리토씨들의 형태음운론적 실현환경, 기능적 의미, 통사적 특징 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자리토씨의 형태음운론적 실현환경이란 자리토씨가 실현될 수 있는 선행체언의 조건을 말하고, 자리토씨의 기능적 의미란 자리토씨가 임자씨와 결합되고 풀이씨와 결합될 때 그 기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를 말하며, 자리토씨의 통사적 특징이란 자리토씨가 그 기능적 의미에 따라 통사상에서 가지는 선택제약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리토씨의 이 세 가지 측면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놓인다.

2.1. 한국어의 자리토씨는 전통·구조주의의 문법에서 겉구조(surface structure)상의 자리(格)와 완전히 일치된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변형생성이론에서는 자리는 속구조(deep structure)에서 배당이 되지만, 자리토씨는 겉구조에 실현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김민수, 1980:363 ~ 368) 그러므로 전통·구조주의와 변형생성

이론에서 자리토씨를 보는 시각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변형생성이론(chomsky : 1965)은 전통·구조주의의 장점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전통·구조주의에서 이룩해 놓은 업적과 공존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격문법(Fillmore : 1968)은 전통·구조주의의 장점마저 수용할 수 없는 이론체계⁷⁾로 말미암아 개별언어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일면이 있다. 예를 들면 우선 심층격의 자리토씨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전통·구조주의에서 곳자리토(處所格助詞)로 쓰이던 것과 도움토씨(補助詞) 일부(－다, －부터, －까지)와 이것들의 결합으로 된 형태만을 심층격의 자리토씨로 볼 수 있기 때문에⁸⁾ 심층의 자리에 여러 개의 이중, 삼중결합의 토씨가 붙을 수 있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또 전통·구조주의에서 임자자리토로, 보아오던 {－이／가}만 하더라도 자리기능(格機能)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선행체언의 자리(格) 배당도 풀이씨의 통사·의미에 따라 [행위격], [경험격],

7) 격문법의 격체계는 세계 모든 언어의 기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은재적 범주(covert category)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 $S \rightarrow P(C_1 + C_2 + C_3 + \dots + C_n + VB) + M$ ”으로 공식화되고 있다. 여기서 S는 월(sentence)이고, P는 명제(proposition)로 격범주(C_n)와 풀이씨줄기(VB)를 포함하며, M은 양태(modality)로 부정(不定), 시제(時制), 서법(叙法), 시상(時相) 등을 포함한다.

8) 김영희(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 제1집, 서울:문법연구회, pp.271~311.

〔 도구격 〕, 〔 대 상 격 〕, 〔 태 격 (態 格) 〕, 〔 양 격 (量 格) 〕, 〔 처 격 (處 格) 〕, 〔 시 격 (時 格) 〕, 〔 원 격 (源 格) 〕, 〔 달 격 (達 格) 〕 등 열 가지가 넘고 있다.⁹⁾ 그러므로 격문법의 이론으로서는 한국어의 자리토씨를 제대로 기술하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본고는 전통·구조주의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본방언의 자리토씨의 결림 관계와 그 기능을 표준어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설명해 나가되,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형생성이론(chomsky : 1965)의 관점을 부가할 것이다.

2.2. 위와 같은 방법론으로 제 2 장에서는 월조각(文章成分)으로서의 일정한 자리에 붙는 자리토씨를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데, 학교문법과 연계되도록 유도하고, 제 3 장에서는 제 2 장에서 하위 분류된 자리토씨 하나하나의 형태에 대하여 그 형태·음운론적 실현환경·기능적 의미, 통사적 특징 등을 표준어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상이점을 밝히며, 제 4 장에서는 본연구의 성과를 요약하고 제언한다.

3. 자료 선정

본고에 인용되는 자료들은 필자가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집한 것과 문헌자료에서 뽑은 것이다. 이러한 자료수집은 본방언 전체의

9) Nilsen (1973 : 130 ~ 132)은 위의 10 격 이외에 〔 원인격 〕, 〔 재료격 〕, 〔 경로격 〕, 〔 체격 (體 格) 〕, 〔 역격 (力 格) 〕 등 5 격을 더 설정하고 있다.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 전역을 하나의 방언구획(dialect division)¹⁰⁾으로 설정하여 이뤄졌는데 다음과 같이 3단계 과정을 밟았다.

- (3) a. 필자는 언중들의 자유로운 대화(free talking)를 2차에 걸쳐 채록하였고,¹¹⁾
- b. 자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헌자료(구비문 학자료)¹²⁾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였으며,
- c.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방언학에 연구업적이 많은 분¹³⁾을 찾아 뵙고 문의하여 자료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10) 제주도 방언은 모관(牧官), 정의(旌義), 대정(大靜), 서귀(西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법적인 형태소인 경우는 방언 전체의 특징이 요구되므로 제주도 전역을 하나의 방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필자는 본도 토박이 화자(native speaker)로서 1차(1978: 7. 10 ~ 7.31), 2차(1988.1.10 ~ 1.31)로 나누어서 방언조사를 실시하였다.

12) 진성기(1976), 「남국의 민담」, 서울: 형설출판사. <이하 민담>
 _____(1980), 「남국의 서사시」, 서울: 정음사. <이하 서사시>
 현용준(1980), 「濟州島巫俗資料辭典」, 서울: 신구문화사, <이하 무속 자료>

13) 필자의 문의에 친절히 답하여 주신 현평효 교수님, 성낙수 교수님, 강정희 교수님, 김지홍 선생님, 윤치부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3)에서 (3a)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제주어 표기법 시안”¹⁴⁾과 현평효(1962)의 “濟州島方言 研究(資料篇)”를 참고하여 전사하였다.

14) 김영돈·현용준·현길언(1985), 「濟州島說話集成(1)」,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권두 부록.

Ⅱ. 자리토씨(格助詞)의 분류

자리토씨(格助詞)는 월조각(文章成分)으로서의 일정한 자리(格, Case)에 쓰이는 토씨를 말한다.¹⁵⁾ 그러므로 자리토씨의 분류는 자리(格)의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자리(格)의 설정

본방언의 자리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기본문형에 관여하는 으뜸자리(基本格), 임자마디(NP) 또는 풀이마디(VP) 확장에 관여하는 딸림자리(從屬格), 부름말(獨立語)을 형성하는 부름자리(呼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1. 으뜸자리(基本格)는 전통문법에서 으뜸조각(主要成分)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변형생성이론에서 기본구절표지(基本句節標識: base phrase marker)에 의해 유도되는 기본격(基本格)¹⁶⁾과 대응된다.

- (4) a. 그 사람이 왔쨌. (그 사람이 왔다.)
b. 가이 사름 똬쨌. (그 아이가 사람이 되었다.)
c. 아방 일 험수다.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d. 가이가 책을 나신디 주엇수다. (그 아이가 책을 나에게

15) 최현배(1986), 「우리말본」, 서울:정음사, p.613.

16) 성광수(1986), “國語格의變形論的 研究－構文規則과 音韻規制上の諸問題에 對하여”, 「韓國語學研究」, pp.24 ~ 38.

주었습니다.)

- e. 우리가 가일 반장으로 뽑았수게. (우리가 그 아이를 반장으로 뽑았습니다.)

위에서 (4a)는 “임자말(主語)+풀이말(叙述語)”로, (4b)는 “임자말(主語)+기움말(補語)+풀이말(叙述語)”로, (4c)는 “임자말(主語)+부림말(目的語)+풀이말(叙述語)”로, (4d)는 “임자말(主語)+부림말(目的語)+간접부림말(間接目的語)+풀이말(叙述語)”로, (4e)는 “임자말(主語)+부림말(目的語)+목적기움말(目的補語)+풀이말(叙述語)”로 각각 구성된다. 여기서 보면 (4)의 월조각들은 모두 풀이씨의 통사적 특성에 따라 형성되고 있다. 즉 (4a)는 [+동작성, [-타동성]]의 풀이씨 특성에 따라, (4b)는 [-동작성, [-완전성]]의 풀이씨 특성에 따라, (4c)는 [+동작성, [+타동성]]의 풀이씨의 특성에 따라, (4d)는 [+동작성, [+타동성], [+수여성]]의 풀이씨 특성에 따라, (4e)는 [+동작성, [+타동성], [-수여성]]의 풀이씨 특성에 따라 각각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성광수(1968:24~38)는 (4)와 같은 예의 월조각들을 기본구절표지(base P-marker)로 유도될 수 있는 ‘기본격(基本格)’이라 하고, 여기서 주격(主格), 서술격(叙述格), 보격(補格), 목적격(目的格), 여격(與格), 목적보격(目的補格) 등 여섯 자리(六格)를 설정하고 있다. (성광수, 1968:24~38)

그런데 여기서 여격과 목적보격은 비록 풀이씨의 통사적 특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풀이마디(NP) 확장에 관여하는 딸림 자리

(從屬格)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구절표지로 유도되는 기본문을 (4a), (4b), (4c)로 한정시켜 보면 여격(與格)과 목적보격(目的補格)도 ‘어찌자리(副詞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a. 나 문제 집의 감수다. (내가 먼저 집에 가고 있습니다.)

a'. 나 문제 감수다.

a''. 집이 있다.

(5a)는 성광수(1968:48)에 의하면 (5a')의 기본구절표지 내의 풀이마디(VP)에 (5a'')의 기본구절표지가 첨가되어 이뤄진 월이다. 즉 일반화구절표지(一般化句節標識: Generalized phrase marker)로 이뤄진 월이다. 그렇다면 (4d)와 (4e)도 이와 같은 설명이 가능해진다.

(4d) 가이가 책을 나신되 주었수다.

(4d') 가이가 책을 주었수다.

(4d'') (가이가 책을 준 되 는) 나가 신 되다.

(4e) 우리가 가일 반장으로 뽑앗수게.

(4e') 우리가 가일 뽑앗수게.

(4e'') (가이가) 반장 주격이 잇다.

(4d)와 (4e)는 (4d')와 (4e')의 기본구절표지 내의 풀이마디(VP)에 (4d'')와 (4e'')의 기본구절표지가 첨가되어 이뤄진 월이다. 이러한 논지의 근거로 어찌말(副詞語) ‘나신되’가 원래는 (4d'')와 같이 완전한 월(sentence)이던 것이 형태소화(形態素

化)¹⁷⁾ 과정을 거치면서 월조각으로 굳어진 사실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나신되’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분명해진다. 즉 ‘나신되’는 “나(1인칭 대이름씨)+시(‘존재’를 뜻하는 ‘이시다’의 어간)+ㄴ(매김풀씨끝)+되(‘장소’를 뜻하는 이름씨)로 분석되어서 그 뜻이 “내가 있는 곳”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다.¹⁸⁾

그리고, 어찌말(副詞語) ‘반장으로’는 ‘-으로’가 여기서 ‘자격’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이가) 반장 자격이 있다.”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d)와 (4e)는 기본구절 표지에 의해 유도되는 월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여격과 목적 보격은 으뜸자리(基本格)로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으뜸자리(基本格)에 설 수 있는 것은 임자자리(主格), 기움자리(補格), 부림자리(目的格), 풀이자리(叙述格) 등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다’로 표현되는 풀이말(叙述語)을 풀이자리(叙述格)로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 풀이자리의 설정은 임자씨(體言)의 자리 배당이 풀이씨의 통사적 특성

17) 유창돈(1964:201)은 이것을 ‘문법화’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문법화(grammaticalization)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쓰이던 실사가 다른 어사(語辭) 밑에 연결되어 선행어사(先行語辭)의 영향하(影響下)에 들어가게 될 때, 그로 인하여 본어의(本語義)가 희박화(稀薄化) 내지 소실되어 선행어사의 기능부(機能部)인 허사(虛辭)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18) ‘-신되’는 본방언에서 문법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쓰이기도 한다.

예) a. 아방 신 될 갓당, (아버지가 있는 데를 갔다가,)
b. 어멍 신 될 오란, (어머니가 있는 데를 와서,)

에 의하여 이뤄진다는 원리에도 어긋나고, 둘째, 풀이 자리를 대표하는 ‘-이다’는 임자씨와 결합할 때 풀이힘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이것은 자리토씨(格助詞)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일반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이다’는 조리갈(論理學)에서 두 개념을 잡아매는 맺음말(繫辭)¹⁹⁾로서 앞말에 붙으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임자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정 어찌씨 ‘아니’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6) a. 저 생이는 돛박생이 (이)다. (저 새는 동백새(眼白鳥)다.

a'. 저 생이는 돛박생이(가) 아니 이다.

a''. 저 생이는 돛박생이(가) 아니다.

(6)의 (6a'')는 (6a)에서 부정변형으로 유도된 월이다. 그러므로 ‘-이다’와 ‘-아니다’는 긍정과 부정의 관계에 놓인다. 여기서 ‘-이다’가 부정 어찌씨 ‘아니’에도 붙는 것은 이것이 자리토씨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다’로 표현되는 풀이말(叙述語)은 자리틀(格體系)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다.²⁰⁾ 이렇게 보면, 으뜸자리(基本格)에 최종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임자자리(主格), 기움자리(補格), 부림자리(目的格) 세 자리가 된다.

19) 최현배(1986), 앞의 책, p.752.

20) 최현배(1986)는 ‘-이다’를 잡음씨(指定詞)로 처리하고 있다.

1.2. 딸림자리(從屬格)는 전통문법에서 딸림조각(從屬成分)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변형생성이론에서 일반화구절표지에 의해 유도되는 일반화격(一般化格)²¹⁾과 대응된다.

- (7) a. 느 이거 아방신티 안네라. (너 이것을 아버지에게 드려라.)
 b. 가일 사름으로 맨드라 줍서. (그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c. 가인 집의서 일 험쩌. (그 아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d. 자인 정보담 여망지키여. (저 아이는 정보다 똑똑하겠다.)
 e. 아방ㄴ라 감저밧되 쉼 들엇덴 꼴으라. (아버지보고 고구마밭에 소가 들어갔다고 말하여라.)
 f. 이견 느 하르방에 아방 산이여. (이것은 너 할아버지의 아버지 묘이다.)

(7)의 밑줄친 월조각에서 (7a), (7b), (7c), (7d), (7e)는 어찌자리(副詞格)이고, (7e)는 매김자리(冠形格)이다. 이것들은 모두 일반화구절표지에 의해 유도될 수 있는 일반화격(一般化格)에 속한다. 이러한 속구조의 현상은 어찌자리와 매김자리가 으뜸자리(基本格)에 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21) 성광수(1968), 앞의 논문, pp.39 ~ 52.

1.3. 부름자리(呼格)는 전통문법에서 홀로조각(獨立成分)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변형생성이론에서 일반화구절표지에 의해 유도되는 일반화격과 대응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 유도되는 과정이 어찌자리와 매김자리와는 다르다.

(8) a. 어머양, 이거 어떻허민 쥔꺼우광? (어머니여,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까?)

b. 철수야, (느가) 이거 할망신되 안네동 오라. (철수야, 이것을 할머니에게 들려두고 오너라.)

(8a)와 (8b)의 부름말(獨立語)은 어찌자리와 매김자리와는 달리 후행하는 월(後行文) 속에서 생성되지 않고, 후행하는 월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것은 부름말이 [+부름]이라는 특수한 발화조건에서 이뤄지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자리토씨의 분류

본방언의 자리(格)를 전통문법에서 변형생성이론으로 무리없이 연결되도록 으뜸자리(基本格), 딸림자리(從屬格), 홀로자리(獨立格)로 구분하여 분류해 보았다. 즉 으뜸자리는 임자자리(主格), 기움자리(補格), 부림자리(目的格)가, 딸림자리에는 매김자리(冠形格), 어찌자리(副詞格)가 홀로자리에는 부름자리(呼格)가 각각 올 수 있었다. 따라서 본방언(표준어 포함)의 자리토씨(格助詞)는 위의 설정된 자리(格)에 따라, 임자자리토, 기움자리토, 부림자리토, 매김자리토, 어찌자리토, 부름자리토 등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이것을

지금까지 학교문법에서 행해진 자리토씨의 분류와 비교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학교문법에서의 자리토씨의 분류 비교표²²⁾

문법교과서 저자명 분 류		김완진 김병곤	김민수	허 웅	이길록 이철수	이응백 안병희	대동문화 연구원	본 고
주	격 조 사	+	+	+	+	+	+	+
목	적 격 조 사	+	+	+	+	+	+	+
보	격 조 사	-	+	-	+	+	+	+
관	형 격 조 사	+	+	+	+	+	+	+
부	사 격 조 사	+	+	-	+	-	+	+
독	립 격 (호 격) 조 사	+	+	+	+	-	+(호 격)	+(호 격)
접	속 격 (공동 격) 조 사	+	+(공동)	-	+	+(공동)	-	-
서	술 격 조 사	-	+	-	+	+	+	-
대	비 격 조 사	-	-	+	-	-	-	-
위	치 격 조 사	-	-	+	-	-	-	-
방	편 격 조 사	-	-	+	-	-	-	-
처	소 격 조 사	-	-	-	-	+	-	-
여	격 조 사	-	-	-	-	+	-	-
구	격 조 사	-	-	-	-	+	-	-
부의 사 격 분 조 사 류	여	격	+	-	-	-	-	-
	처	소	격	+	-	-	-	-
	탈	격	+	-	-	-	-	-
	조	격	+	-	-	-	-	-
	비	교	격	+	-	-	-	-

〈 표 2 〉 에서 보면 본고에서의 자리토씨의 분류는 학교문법에서의 자리토씨 분류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고에서의 자리토씨 분류가 월조각으로서의 일정한 자리 (格, Case)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22) 점인·국정번호	저 자 명	교과서명	출 판 사	면 수
3141	김완진, 김병곤	문 법	박 영 사	184
3142	김 민 수	문 법	어 문 각	188
3143	허 웅	문 법	과 학 사	175
3144	이길록, 이철수	문 법	삼 화 출 판 사	180
3145	이응백, 안병희	문 법	보 진 재	180
85-3004	대동문화연구소	문 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86

Ⅲ. 자리토씨의 결림 관계와 그 기능

1. 임자자리토 (主格助詞)

임자자리토는 그 선행체언의 의미자질에 따라 [+높임]의 형태 (－께서)와 [－높임]의 형태 (－이／－가)로 나누어지는데, 본방언에서는 {－께서}는 실현되지 않고, {－이／－가}만이 실현된다.²³⁾

1.1. {－이／－가}

1.1.1. 실현환경

{－이／가}는 표준어의 형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실현환경도 표준어와 일치된다.

(9) a. 책이 하난,

a'. 책이 많으니까,

23) 표준어의 임자자리토로 보아오던 {－에서}와 이에 대응되는 본방언의 {－의서}와 {－에서}를 뺀 것은 1 “NP₁ (이／가) NP₂ (예₂의)서 VP”의 구조에서 유정물 명사 NP₁이 생략된 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자자리(主格)에 나타나는 {－이라／－라}를 뺀 것은 임자자리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라／－라}는 “기대한 것보다 많다.”는 뜻을 가진 {－이나／－나}와 서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예) a. 식겻칩의 두갯이가 와선께. (제삿집에 부부가 왔더라.)

b. 식겻칩의 두갯이라 와선께. (제삿집에 부부나 왔더라.)

b'. 식겻칩의 두갯이나 와선께.

b. 계와가 터져시네.

b'. 호주머니가 터져 있잖아.)

(9a), (9b)는 본방언이고, (9a'), (9b')는 표준어이다. 여기서 보면 (9a), (9a')의 { -이 }는 그 선행체언의 말음이 자음일 때 실현되고 있고, (9b), (9b')의 { -가 }는 그 선행체언의 말음이 모음일 때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 -이 / -가 }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phon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로서 서로 상보적 관계에 놓인다.

그런데 본방언에서 { -이 }는 [+높임]의 선행체언과 결합될 수 있는데 비해, { -가 }는 [+높임]의 선행체언과 결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환경조건은 이름씨의 파생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다.

(10) a. { 아방, 어멍, 하르방, 할방, 아주방, 아주방…… } 이 구들에 들어오난,

a'.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 께서 방구들에 들어오시니까.

b. { *어멍이, *아방이, 뽕쟁이, 불미쟁이, 명길이, 순이, 가이, 헛나이, 강생이, 주뎡이…… } 가 ²⁴⁾ 아프난,

24) 방언의 ‘-이가’의 구성은 ①「임자자리토(主格助詞)+임자자리토(主格助詞)」로 보는 견해 <이익섭(1981:104), 홍윤표(1978:45), 최명옥(1980:37)>, ②「뒷가지(接尾辭)+임자자리토(主格助詞)」로 보는 견해 <람스테트(1939:45~47), 최현배(1986:671~673)>, ③「임자자리토(主格助詞)+도움토씨(補助詞, 特殊助詞)」로 보는 견해 <홍윤표(1978:45)> 등이 있다.

b'. { 걱정이, 대장장이, 명길, 순이, 그애, 하나, 강아지, 입 언저리…… } 가 아프니까,

(10a), (10a')의 임자말(主語)의 의미자질은 [+존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10b), (10b')의 임자말의 의미자질은 [-존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임자자리토의 실현양상을 보면, (10a)의 {-이}²⁵⁾는 (10a')에서 {-께서}로 실현되고 있는데 비해, (10b)의 {-가}²⁵⁾는 (10b')에서도 {-가}로 실현되고 있다. 이것은 본방언의 {-이}가 {-가}와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1.2. 기능적 의미

본방언의 {-이/-가}의 기능적 의미는 {-이/-가}가 임자자리(主格)의 기능을 떠맡고 있으므로 표준어와 동일하게 [+주체]로 나타난다.

- (i1) a. 어명이 감절 소끄단, (어머니가 고구마를 쏘다가,)
 b. 가이가 착허난, (그 아이가 착하니까,)
 c. 성이 가장이우다. (형이 가장입니다.)

25) 김승곤(1986: 13 ~ 17)은 한국어의 임자자리토 {-이}가 3인칭 통용대명사(三人稱通用代名詞) '이'에서 왔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가}도 3인칭통용대명사 '그'의 변이형태 '가'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 a. 철수 가이 어디 가시니?
 a'. 철수 가 어디 가시니?
 a''. 철수가 어디 가시니?

(11)에서 (11a)의 {－이}는 ‘어멍(어머니)’을 동작의 주체가 되게 하고 있고, (10b)의 {－가}는 ‘가이(그 아이)’를 상태의 주체가 되게 하고 있으며, (10c)의 {－이}는 ‘성(형)’을 가장으로 규정하는 지정의 주체가 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이／－가}가 [+주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본방언에서는 무표지(無標識, ϕ)의 체언이 흔히 쓰이기 때문에 무표체언(無標體言)²⁶⁾의 임자자리(主格)에 {－이／－가}가 첨가되면 어색해지거나 [+강조]의 의미를 띠게 된다.

(12) a. 나 밧디 감수다.(저 밧에 가고 있습니다.)

?a'. 나가 밧디 감수다.(제가 밧에 가고 있습니다.)

b. 느 고뵤다?(너 숨고 있느냐?)

?b'. 느가 고뵤다?(너가 숨고 있느냐?)

c. 나 고우냐?(내가 예쁘니?)

c'. 나가 고우냐?(내가 예쁘니?)

d. 나 그 일 해신티,(내가 그 일을 했는데,)

d'. 나가 그 일 해신티,(내가 그 일을 했는데,)

(12a), (12b), (12c), (12d)는 무표지(ϕ)의 체언으로 표현되었고, (12a'), (12b'), (12c'), (12d')는 유표지의 체언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12a), (12b), (12c), (12d)는 자연스러운데 비

26) 안병희(1966)는 무표체언(無標體言)을 부정격(不定格, *Casus Indefinitus*)이란 용어로, 민현식(1982)은 무표체언을 무표격(無標格)이란 용어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해 (12a'), (12b'), (12c'), (12d')는 어색해지거나 그 뜻이 [－강조]에서 [+강조]로 바뀌고 있다. 즉 (12a')와 (12b')는 유표지(有標識) {－가}로 인해 어색해지고, (12c')와 (12d')는 유표지 {－가}로 인해 [+강조]의 의미를 띠고 있다. 이것은 {－이／－가}의 기능적 의미와는 달리 문맥의존적(文脈依存的) 성격(性格)을 지니고 있다.

1.1.3. 통사적 특성

본방언의 {－이／－가}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NP(이／가) VP”의 구조 속에서 임자자리의 기능을 가지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NP₁(이／가) NP₂(이／가) VP”와 같은 독특한 겹구조 생성에 관여한다.

1.1.3.1. NP(이／가) VP

본방언의 {－이／－가}는 표준어와 동일하게 “NP(이／가) VP”의 구조 속에서 실현된다.

- (13) a. 바당이 퍼렁 한다. (바다가 파랗다.)
 b. 강생이가 죽그다. (강아지가 짖다.)
 c. 옛날 잘 현뎌 현 사람이 가이 하르방이 우다. (옛날 이 야기를 잘 한다고 한 사람이 그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d. 어멍이 예기 신 신뵈수다. (어머니께서 아기에게 신을 신기고 있습니다.)
 e. 아방이 밧 갈압수다. (아버지께서 밭을 갈고 계십니다.)
 f. 할망이 불 솜압수다. (할머니께서 불을 때고 계십니다.)

(13)의 예들은 모두 “NP (이/가) VP”의 구조에서 생성되어 나오고 있다. (13a), (13b)는 VP가 바로 풀이씨가 되는 예이고, (13c)는 VP가 다시 매김말(冠形語)과 풀이말(叙述語)을 가지고 있는 예이며, (13d), (13e), (13f)는 VP가 다시 부림말(目的語)과 풀이말(叙述語)을 가지고 있는 예이다. 여기서 (16)에 쓰이는 {－이/－가}들의 통사적인 특징을 살펴 보면, {－이/－가}의 선행체언은 (16a)의 ‘바탕’, (16b)의 ‘강생이’, (16c)의 ‘사름’, (16d)의 ‘어멍’, (16e)의 ‘아방’, (16f)의 ‘할망’ 등과 같이 [+유정물], [-유정물], [+인간], [-인간]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가}의 풀이씨는 (16a), (16b), (16c), (16d)·(16e)·(16f) 등과 같이 그림씨, 제움직씨, 잠음씨, 남움직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본방언은 표준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NP {께서} VP”와 같은 겹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 (14) a. 어멍 {이, *께서} 옷 줄 험벅 좇암수다. (어머니께서 옷을 기울 형짚을 찾고 계십니다.)
 b. 아방 {이, *께서} 신문 뵈수다.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

(14a)와 (14b)의 임자말(主語)은 그 의미자질이 [+존대]임에도 불구하고 {－께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본방언이 자리토씨에 의한 늑힘법보다도 풀이씨의 앞선 씨끝(先語末語尾)

과 첨사(添辭) ‘-마씀’에 의한 높임법이 발달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²⁷⁾

1.1.3.2. NP₁ (이/가) NP₂ (이/가) VP

방언과 표준어의 통사적 구조의 동질성은 방언과 표준어가 모두 한국어라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것은 임자자리토 {-이/-가}의 중출현상²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5) a. 아방이 재산이 이시냐게. (아버지가 재산이 있겠느냐.)
 b. 고장이 문주란이 고운게. (꽃이 문주란이 예쁘다.)
 c. 성이 눈이 너무 커부난, (형이 눈이 너무 커버리니까,)
 d. 췌가 배가 골착헛찌. (소가 배가 고포다.)
 e. 국사발이 두 개가 엇수다. (국사발이 두 개가 없읍니다.)

(15a), (15b), (15c), (15d), (15e) 등은 모두 {-이/-가}의 중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겹구조의 현상지 지나지 않으며, 속구조는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

27) 현평호(1977) 「濟州島方言의 尊待法」 참조.

28) {-이/-가}의 중출현상의 구절구조규칙은 $S \rightarrow NP VP$, $VP \rightarrow \{NP_S^V\}$ (여기서 NP는 보어임)로 기술할 수 있다. 1.1.3.2.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 $VP \rightarrow S$ ’인 경우에 한한다.

(15') a. 아방신의 재산이 이시냐게.

*a'. 아방에 ²⁹⁾ 재산이 이시냐게.

b. 고장가운데 문주란이 고운게.

*b'. 고장에 문주란이 고운게.

c. 성신의 눈이 너미 커부난,

*c'. 성에 눈이 너미 커부난,

d. 웨안틱 배가 끌착헛쨌.

*d'. 웨에 배가 끌착헛쨌.

e. 국사발가운데 두 게가 엇수다.

*e'. 국사발에 두 게가 엇수다.

(15a), (15b), (15c), (15d), (15e) 등의 월은 각각 (15'a), (15'b), (15'c'), (15'd'), (15'e)의 속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17) 예들의 NP₁은 임자자리(主格)로 볼 수 없다. 즉 (15a), (15b), (15e)의 NP₁은 어찌자리(副詞格)로, (15c), (15d)의 NP₁은 매김자리(冠形格)로 각각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15)의 NP₁에 첨가되는 { -이 / -가 }는 임자자리(主格)의 기능보다는 주체화의 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15) 예들의 NP₁을 주체화시키는 { -이 / -가 }는 본

29) 본방언에서 { -에 }는 표준어의 { -의 }에 해당된다.

예) a. 가이 느에 아시냐?

b. 그 어명에 똬이 기어나난,

방언에서 특별한 발화상황이 아닌 이상은 실현되지 않는다.

(15'') a. 아방 재산이 이시냐게.

*b. 고장 문주란이 고운게.

c. 성 눈이 너미 커부난,

d. 꿔 배가 골착헛쨌.

e. 국사발 두 게가 엇수다.

(15'')는 NP₁에 첨가되는 { -이 / -가 }가 안 쓰임으로써 짝짜인 종속(tight subordination) 구조에서 좀 느슨한 병렬(loose paratactic) 구조로 바뀌고 있다.³⁰⁾ 여기서 (15''b)가 비문이 되는 것은 주제화가 안 이뤄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는 NP₁이 대표명사에 한정된다.

2. 기움자리토(補格助詞)

기움자리토는 [-완전성]의 풀이씨 특성에 의하여 할당되는 자리(補格)에 첨가되는 것으로서, 그 형태는 방언과 표준어가 모두 임자자리토의 형태인 { -이 / -가 }로 나타난다.

2.1. { -이 / -가 }

30) 강정희(1983), 앞의 논문, p.25.

2.1.1. 실현 환경

기움자리토는 임자자리토의 형태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실현환경도 임자자리토와 일치된다. 그러나 그 실현되는 자리(格)는 다르다.

(16) a. 그 산터가 집이 돼여부난, (그 묘자리가 집이 되어버리니까,)

b. 가이 우튼 아이가 아니우다. (그 아이는 주제넘은 아이가 아닙니다.)

(16a)의 {－이}는 선행체언의 말음이 자음으로, (16b)의 {－가}는 선행체언의 말음이 모음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임자자리토 {－이／－가}의 실현 환경과 일치되고 있으나, 그 실현되는 자리는 달라지고 있다. 이것은 {－이／－가}의 기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2.1.2. 기능적 의미

기움자리토 {－이／－가}의 의미는 임자자리토와는 달리 풀이씨의 통사적 특성에 의하여 이뤄지는데, 방언과 표준어가 동일하게 [+기움]으로 나타난다.

(17) a. 밧 두 다우는 건 몽니가 아니난, (밧 입구를 막는 것은 심술이 아니니까,)

b. 나는 너의 큰부인 집 일문전(一門前)이 돼여진다.<무

(17a)의 풀이씨는 ‘아니다’이고, (20b)의 풀이씨는 ‘됐다’이다. 이 풀이씨들은 모두 기움말을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7a)에서는 ‘몽니’가, (17b)에서는 ‘너의 큰부인 집 일문전’이 각각 기워지고 있다. 이때 기움자리(補格)에 첨가되는 {－이／－가}는 기움말(補語)의 영향을 받아 [+기움]의 의미를 얻고 있다.

2.1.3. 통사적 특성

본 방언의 기움자리토의 통사적 특성은 표준어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NP₁(이／가) NP₂(이／가) VP”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 (18) a. 두린 애기가 어른이 돼민,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면,)
 b. 그 산터가 집이 돼난, (그 묘자리가 집이 되니까.)
 c. 기정 한 디가 모관이 아니우다. (절벽이 많은 곳이 제주시가 아닙니다.)
 d. 그 사람이 가네 성이 아니우다. (그 사람이 그 아이의 형이 아닙니다.)

(18)의 예들은 모두 “NP₁(이／가) NP₂(이／가) VP”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여기서 NP₂는 (18a)의 ‘어른’, (18b)의 ‘집’, (18c)의 ‘모관’, (18d)의 ‘성’ 등과 같이 [±유정물] 또는 [±인간]에 관계없이 실현되고 있으나, (18a), (18b)의 VP(제

움직씨) ‘돼다’와 (18c), (18d)의 VP(그림씨) ‘아니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므로 (18)에서 NP₂가 빠지면 비문법적인 월이 된다.

- *(18') a. 두린 애기가 돼민,
 b. 그 산터가 돼난,
 c. 기정 한 다가 아니우다.
 d. 그 사람이 아니우다.

(18')는 NP₂가 빠짐으로써 비문(非文)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풀이씨의 [－완전성]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돼다’에 의해서 이뤄지는 NP₂를 기움자리(補格)로 설정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돼다’에 의하여 이뤄지는 NP₂가 ‘어찌자리(副詞格)’에서 피동화규칙에 의하여 유도되기 때문이다.

- (18'') a. (세월이) 두린 애기를 어른으로 맨들민,
 a'. (세월에 의하여) 두린 애기가 어른으로 돼민,
 a''. 두린 애기가 어른이 돼민,
 b. (사람들이) 그 산터를 집으로 맨드난,
 b'. (사람들에 의하여) 그 산터가 집으로 돼난,
 b''. 그 산터가 집이 돼난,

(18'')에서 보면 (18''a''), (18''b'')의 기움말(補語)은 (18''a), (18''b)의 어찌자리(副詞格)에서 각각 유도되고 있다. 이것은 ‘돼다’가 기움자리에 관여하는 풀이씨가 아님을 뜻한다.

3. 부림자리토(目的格助詞)

부림자리토는 [+타동성]의 풀이씨 특성에 의하여 할당되는 자리(目的格)에 첨가되는 것으로서, 그 형태는 표준어와 동일하게 { -을 / -르 }로 나타난다.

3.1. { -을 / -르 }

3.1.1. 실현 환경

본방언의 부림자리토의 형태는 선행체언의 말음이 자음일 때는 표준어와 동일하나, 모음일 때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19) a. 나 널 산에 올랑 스방을 둘러보암시크메,
a'. 나 내일 산에 올라서 사망을 둘러보고 있을 테니까,
b. 나가 보릴 비어동 오젠 허난,
b'. 나가 보리를 비어동 오젠 허난,
b''. 내가 보리를 베어 두고서 오려고 하니까,
b'''. 내가 보릴 베어 두고서 오려고 하니까,)

(19 a), (19 b), (19 b')는 본방언이고, (19 a'), (19 b''), (19 b''')는 표준어이다. 여기서 보면 (19 a)와 (19 a')에서는 동일하게 { -을 } 하나로 실현되고 있는데 비해, (19 b)와 (19 b'')와 (19 b''')에서는 각각 { -를 }과 { -르 }이 동시에 실현되고 있다. 즉 부림자리토의 선행체언의 말음이 자음이면 본방언과 표준어가 동일하게 { -을 }로 실현되는데 비해, 모음이면 { -을 }과 { -르 } 두 가지로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본방언의 부림자리토 가운데 { -를 }은 선행체언을 강

조할 때만 쓰이고 있어서 { ㄴ } 형태에 밀리고 있다.

(20) a. 그 사람이 쉼 마꾸단, (그 사람이 소를 키우다가,)

a'. 그 사람이 쉼을 마꾸단,

b. 무사 나가 늘 욱혈 리 이시니? (왜 내가 너를 욱혈
리가 있겠느냐?)

b'. 무사 나가 늘 욱혈 리 이시니?

본 방언에서 (20 a)와 (20 b)의 { ㄴ }로 표현되는 부림말
(目的語)은 자연스러우나, (20 a')와 (20 b')의 { ㄴ을 }로 표
현되는 부림말은 어색하거나 아니면 [+강조]의 의미를 띠고 있
다. 이것은 표준어 형태인 { ㄴ을 }이 방언의 형태인 { ㄴ }과
교체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방언에
서 [+강조]의 의미로 실현되고 있는 { ㄴ을 }은 본방언의 순
수한 형태로 볼 수 없다.

3.1.2. 기능적 의미

본 방언의 부림자리로 { ㄴ을/ㄴ }의 의미는 표준어와 동일
하게 [+부림]으로 나타난다.

(21) a. 영희가 방석을 데짰 안지난, (영희가 방석을 뒤집어서
았으니까,)

b. 할망이 콧대산일 다듬단, (할머니가 마늘껍질을 벗기다
가,)

(21 a)의 { ㄴ을 }과 (21 b)의 { ㄴ }은 남움직씨(他動詞)의
도움을 받아 그 선행체언을 부리는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즉

(21 a)의 { -을 }은 ‘방식’을, (21 b)의 { -ㄴ }은 ‘콤포대산이’를 각각 부리는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 -을 / -ㄴ }이 [+부림]의 기능을 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 -을 / -ㄴ }이 제움직씨(自動詞)와 걸릴 때는 [+강조]로 나타난다.

(22) a. 느 어딜 감시니? (너 어디를 가고 있느냐?)

b. 나 밧될 감수다. (저 밧에를 가고 있습니다)

(22 a)와 (22 b)는 제움직씨 ‘가다’로 이뤄진 말이다. 그러므로 (22 a)와 (22 b)의 NP₂ 자리에는 어찌자리토(副詞格助詞)가 첨가되어야 정상적이다. 그런데 (22 a)와 (22 b)의 NP₂ 자리에는 파격적으로 { -ㄴ }이 첨가되고 있다. 이것은 { -ㄴ }이 선행체언을 부리는 표지가 아니라 강조하는 표지임을 뜻하고 있다. 그래서 임홍빈(1972:88)은 이것을 대상 전체를 그 자체만을 문제삼는 「비대조적 대립(非對照的 對立)」에 의한 주제(主題)라고 설명하고 있다.

3.1.3. 통사적 특성

본방언의 { -을 / -ㄴ }의 통사적 구조는 표준어와 동일하게 “NP₁(이/가) NP₂(을/ㄴ) VP”로 나타나는데, 발화상황에 따라서는 “NP₁(이/가) NP₂(을/ㄴ) NP₃(을/ㄴ) VP”로도 나타난다.

3.1.3.1. NP₁(이/가) NP₂(을/ㄴ) VP

본방언의 { -을 / -ㄴ }은 표준어와 동일하게 “NP₁(이/가)

NP₂ (을／르) VP ”의 구조 속에서 실현된다.

- (23) a. 가이가 애길 돌단, (그 아이가 애기를 돌보다가,)
b. 느쎄 물 맥연다? (너 소에게 물을 먹이었느냐?)
c. 나가 잔칫집을 간 보난, (내가 잔칫집에를 가서 보니까,)
d. 그 사람이 이덜 오란, (그 사람이 여기를 와서,)

(23 a), (23 b), (23 c), (23 d)의 { -을／-르 }은 모두 “NP₁ (이／가) NP₂ (을／르) VP”의 구조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여기서 { -을／-르 }의 통사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 -을／-르 }의 의미가 [+부림]일 때와 [+강조]일 때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가 있다.

첫째, { -을／-르 }의 의미가 (23 a)와 (23 b)와 같이 [+부림]일 때에는, NP₁은 (23 a)의 ‘가이 (그 아이)’, (23 b)의 ‘느’ 등과 같이 [+유정물]로 나타나고 있고, NP₂는 (23 a)의 ‘애기 (아기)’, (23 b)의 ‘물’ 등과 같이 [±유정물]로 나타나고 있으며, VP는 (23 a)의 ‘돌다 (돌보다)’, (23 b)의 ‘멕이다 (먹이다)’ 등과 같이 남움직씨 (他動詞)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 -을／-르 }의 의미가 (23 c)와 (23 d)와 같이 [+강조]일 때에는, NP₁은 (23 c)의 ‘나’, (23 d)의 ‘그 사람 (그 사람)’ 등과 같이 [+유정물]로 나타나고 있고, NP₂는 (23 c)의 ‘잔칫집의 (잔칫집에)’, (23 d)의 ‘이디 (여기)’ 등과 같이 [+장소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VP는 (23 c)의 ‘가다’, (23

d)의 ‘오다’ 등과 같이 이동동작의 제움직씨(目動詞)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 -을 / -르 }의 통사적 특성은 그 의미가 [+부림]이나 [+강조]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 -을 / -르 }이 한 가지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런데 본방언에서는 { -을 / -르 }이 생략됨으로써 남움직씨(他動詞)까지 아울러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24) a. 가네덜이 별초 가서냐? (그 아이들이 별초하러 갔더니냐?)

b. 삼춘 일 가서냐? (삼춘이 일하러 갔더니냐?)

c. 그 사람 장시 땡겜선게. (그 사람이 장사하러 다니고 있더라.)

d. 가이 바룻 가선게. (그 아이가 해 산물을 잡으러 갔더라.)

(24)는 부림자리토 { -을 / -르 }이 생략됨으로써 남움직씨까지 생략되는 보기들이다. 여기서 (24 a), (24 b), (24 c), (24 d)에 나타나는 ‘가다’, ‘오다’, ‘땡기다(다니다)’ 등의 제움직씨는 안은월(上位文)의 풀이씨로서 부림자리(目的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동동작의 제움직씨는 원래 어찌자리(副詞格)와 공기(共起)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림자리(目的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안긴월(內包文)의 풀이씨인 남움직씨가 된다.

- (24') a. [가네덜 [(가네덜) [별초 (을) 허 ϕ] VP] $\bar{s}$ 레
[가서냐] vp] s_0
- b. [삼춘 [(삼춘) [일 (을) 허 ϕ] vp] $\bar{s}$ [가서
냐] vp] s_0
- c. [그 사람 [(그 사람) [장시 (를) 허 ϕ] vp] $\bar{s}$
레 땡점선게] vp] s_0
- d. [가이 [(가이) [바릇 (을) 잡 ϕ] vp] $\bar{s}$ 으레
[가선게] vp] s_0

(24')는 (24)의 속구조들이다. 여기서 보면 부림자리 (目的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풀이씨는 ‘가다’, ‘오다’, ‘땡기다 (다니다)’ 등의 제움직씨가 아니라 ‘허다 (하다)’, ‘잡다’ 등의 남움직씨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속구조 (deep structure)의 현상으로써 겉구조 (surface structure)에서는 흔히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은 말을 짧게 하려는 언중 (言衆)들의 언어심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략이 지나치면 표준어와의 구조적인 괴리현상 (乖離現象)이 생긴다.

- (25) a. 나가 멍길 먹으난,
a'. 내가 명절을 먹으니까,
a''. 내가 명절에 음식을 먹으니까,
a''' .내가 명절을 지내니까,

(25)는 본방언을 표준어로 대역 (對譯) 할 때 생기는 구조적 괴리현상이다. 여기서 보면 (25a)의 본방언을 표준어로 옮길 때, 대

역(對譯)한 (25a')는 비문(非文)이 되고 있고, 생략된 말을 보충한 (25a'')와 의역(義譯)한 (25a''')는 문법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것은 표준어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3.1.3.2. NP₁ (이/가) NP₂ (을/르) NP₂ (을/르) VP.

본방언과 표준어의 통사적인 동질성은 부림말(目的語)의 중출 현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26) a. 느 가일 사름을 맨들젠 허난 속암찌. (너 그 아이를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있다)

b. 느 감절 훈 출구덕을 소강오라. (너 고구마를 한 대 바구니를 쏴아서 오너라.)

(26)은 본방언과 표준어의 부림자리토의 중출현상을 엿볼 수 있는 보기들이다. 이 예들의 NP₃는 다음 (26')의 NP₃를 주제화(主題化)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³¹⁾

(26') a. 느 가일 사름으로 맨들젠 허난 속암찌.

b. 느 감절 훈 출구덕만 소강 오라.

(26)에서 (26a)는 (26'a)의 '사름으로'를, (26b)는 (26b')의 '훈 출구덕만'을 각각 주제화시킨 결과이다.

그런데 (26)과 같은 부림자리토의 중출은 본방언에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특수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본방언에서 부림자리토의 중출현상은 표준어와는 달리 잘 일어나지 않는다.

31) 임홍빈(1972), “國語主題化 研究”, 참조.

(26'') a. 느 가이 사름 맨들젠 허난 속암찌.

b. 느 감저 혼 출구딕 소깡 오라.

(26'')는 본방언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발화이다. 이 (26'')의 월을 (26)의 월과 대응시켜 보면, (26'')는 본방언의 언중들이 즐겨 사용하는 형식인데 비해, (26)은 특수한 발화상황에서만 사용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본방언에서는 주제화(主題化)에 의한 부림자리토의 중출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4. 매김자리토(冠形格助詞)

매김자리토는 임자마디(NP) 형성 및 확장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표준어는 {－의} 하나로 실현되는데 비해, 본방언은 {－에}, {－이}, {－ㅅ} 등 여러 가지로 실현된다.³²⁾

4.1. {－에 / －이 / －ㅅ}

4.1.1. 실현 환경

본방언의 매김자리토는 표준어와는 달리 몇 가지 독특한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선행체언의 형태음운론적 조건 및 의

32) 본방언의 매김자리토로 볼 수 있는 {－네}를 제외시킨 것은 이것이 [+무리]의 뜻을 지니고서 뒷가지(接尾辭)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는 이것이 1인칭 대이름씨에 붙을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예) *a. 나네 집의 가게

*b. 우리네 집의 가게

c. 느네 집의 가게

미자질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27) a. 느 어멍 { 에,³³⁾ *이, *이, *ㅅ } 오라방이 옛날말 잘 헌
덴 쫘아라.

a'. 너 어머니의 오라버니가 옛날 이야기를 잘 한다고 말
하더라.

b. 가인 놈 { 이, *에, *ㅅ } 일이나 해연 살암실꺼우다.

b'. 그 아이는 남의 일이나 하여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c. 체 알엿 ㅁ를은 줌질긴 줌질아, < 무속자료 : 245 >

c'. 체 아래에의 가루는 자잘하기는 자잘아,

(27a), (27b), (27c)는 본방언이고, (27a'), (27b'), (27c')는 표준어이다. 여기서 보면, 표준어의 매김자리토는 { -의 } 하나로만 실현되고 있는데 비해, 본방언의 매김자리토는 { -에 }, { -이 }, { -ㅅ } 등 세 가지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이 세 가지 형태들은 모두 선행체언의 형태와 의미자질에 의해 선별되고 있다. 즉 { -에 }는 그 선행체언이 [+유정물]일 때, { -이 }는 그 선행

33) 본방언의 매김자리토 { -에 }는 중세 국어 이전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 { -에 }는 { -이 }로도 표기할 수 있다.

a. 耆郎矣貞史 (讚耆婆郎歌)

b. 心未際叱謔 (讚耆婆郎歌)

c. 哀反多矣從良 (風謠)

d. 自矣心米貞史 (過賊歌)

e. 直等隱心音矣命叱便以惡只 (兜率歌)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서 동시에 [+사람]³⁴⁾ 일 때, { -ㅅ }³⁵⁾은 그 선행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동시에 [+장소성] 일 때 각각 선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이형태로 볼 수 있다.

4.1.2. 기능적 의미

{ -에 / -이 / -ㅅ }의 의미는 표준어와 동일하게 [+매김]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 -에 / -이 / -ㅅ }의 기능적 의미는 매김말(冠形語)과 매김을 받는 말(被冠形語) 사이에서 파생되는 의미와는 다르다.³⁶⁾

(28) a. 그 어명에 딸이 노시 말을 안 들었, (그 어머니의 딸이 도무지 말을 안 들어서,)

b. 우린 중이 팔젤 정연, <서사시 : 47> (우리는 중이 팔자를 지니어서,)

c. 죽강이 콧떡 띄고치명, <무속자료 : 262> (겨드랑이 품에 떡을 꿸면서,)

(28)에 실현되고 있는 { -에 / -이 / -ㅅ }은 선행체언을 한정하고 나서 후행하는 말을 매김하고 있다. 즉 (28a)의 { -에 }는

34)여기서 [+사람]이란 ‘중’, ‘놈’, ‘정승’, ‘양반’, ‘심방’ 등의 특정인을 말한다.

35)사이시옷은 음운론적인 현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통사론적인 현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입장만을 다루고 있다.

36)최현배(1986:618~619)는 { -의 }의 의미를 ①소유 ②관계 ③소재(所在) ④소산(所産) ⑤소기(所起) ⑥비유 ⑦대상 ⑧소성(所成) ⑨명칭 ⑩소속 ⑪소작(所作) ⑫매김 등 12가지로 가르고 있다.

‘그 어명’을 한정하고 나서 ‘딸’을 매김하고 있고, (28b)의 {－이}는 ‘중’을 한정하고 나서 ‘팔제’를 매김하고 있으며, (28c)의 {－ㅅ}은 ‘쿰에’를 한정하고 나서 ‘떡’을 매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이／－ㅅ}은 선행체언에 대해서는 [+한정]의 의미를, 뒷말(後行語)에 대해서는 [+매김]의 의미를 각각 지니게 된다.

4.1.3. 통사적 특성

본방언의 매김자리토의 통사적 특성은 {－에／－이}와 {－ㅅ}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4.1.3.1. {－에／－이}의 통사적 특성

본방언의 {－에}는 표준어의 {－의}와 마찬가지로 임자마디(noun phrase) 확장에 관여하는데 비해, {－이}는 비록 표준어의 {－의}에 해당되더라도 그 쓰임이 제한적이어서 간단한 임자마디 형성에만 관여한다.

(29) a. 심방이 딸이 곱주. (무당의 딸이 예쁘지.)

b. 이건 느 아방에 산이여. (이것은 너의 아버지의 묘이다.)

b'. 이건 느 아방에 아방에 산이여.

b". 이건 느 아방에 아방에 아방에 산이여.

(29)에서 보면, {－에}와 {－이}는 풀이씨의 통사적 특성에 의해 제약받는 일이 없는 것은 공통점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그 쓰임은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29a)의 {－이}는 간단한 임자마디(NP) 형성에 관여하고 있으나, (29b), (29b'), (29b")의

{ -에 } 는 긴 임자마디 (NP)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 -에 } 는 표준어 { -의 } 와 같이 이론상 무한한 ‘좌분지구문 (左分持構文: left-branching Construction) 을 생성시킬 수 있다.’³⁷⁾

(29b'') [[[[[느ϕ]_{Adn} 아방에]_{Adn} 아방에]_{Adn} 아방에]_{Adn} 산] NP³⁸⁾

(29b'')에서 N₅ (산) 을 빼고 계속 Adn (아방에) 을 내포시킨다면, 이론상 무한한 좌분지구문을 생성시킬 수 있다.

4.1.3.2. { -ㅏ } 의 통사적 특성

{ -ㅏ } 은 어찌말 (副詞語) 과 이름씨 (名詞) , 이름씨 (名詞) 와 이름씨 (名詞) 등의 사이에 들어가 매김자리 (冠形格) 의 기능을 가진다.

- (30) a. 솔밋땃 할망이 엇이난, (솔밋엃 할머니가 없으니까,)
 b. 너븐왓땃³⁹⁾ 사람이 오난, (너븐왓엃 사람이 오니까,)
 c. 동네엃 사람덜이 문밖 모야들언, (동네엃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서,)
 d. 잔칫집의 가민, (잔칫집에 가면,)

37) Chomsky (1965:13)는 ‘left-branching’을 “계속적인 구절 구조의 왼쪽 가지에 내포(embedding)를 허용하는 규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여기서 Chomsky가 든 예는 [[['A] A] A], John's wife's father인데, 우리말의 { -의 } 의 용법과 일치한다.

38) NP → Adn + N₂ Adn = Adnominal Adn → N₁ + M
 M = Marker M → 에 (이)

39) 지명

e. 과일배가 들어오난, (고깃배가 들어오니까,)

(30a), (30b), (30c)의 임자마디(NP)는 “어찌말+이름씨”로 구성되고 있고, (30d), (30e)의 임자마디(NP)는 “이름씨+ㅅ+이름씨”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서 보면 {ㅅ}은 어찌말과 이름씨, 이름씨와 이름씨 등의 사이에 각각 들어가 후행하는 이름씨를 꾸미는 구실을 하고 있다.⁴⁰⁾ 이것은 “어찌말+ㅅ+이름씨”의 구성과 “이름씨+ㅅ+이름씨”의 구성의 속구조를 분석해 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 (30') a. 솔밋딛 할망
 a'. 솔밋딛 (잇는) 할망
 a". 솔밋딛 할망이 잇다.
 b. 너븐왓딛 사름
 b'. 너븐왓딛 (사는) 사름
 b". 너븐왓딛 사름이 살다.
 c. 동네엿 사름덜
 c'. 동네예 (사는) 사름덜
 c". 동네예 사름덜이 살다.
 d. 잔칫집
 d'. 잔치 (를 하는) 집

40) 임흥빈(1985:10)은 {ㅅ}을 통사적 구성의 파격, 말하자면 통사적 연결의 부자연성(不自然性)이나, 불가해성(不可解性)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d". 잔치를 집이 하다.

e. 고깃배

e'. 고기 (를 낚는) 배

*e". 고기를 배가 낚다.

(30')에서 {－ㅅ}이 유도되는 과정을 보면, (30'a)는 '있다→잇는→ㅅ'으로, (30'b)와 (30'c)는 '살다→사는→ㅅ'으로, (30'd)는 '～를 하는→ㅅ'으로 (30'e)는 '～를 낚는→ㅅ'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ㅅ}은 통사상에서 [매김]의 구실을 하고 있는 자리토임을 알 수 있다.

5. 어찌자리토 (副詞格助詞)

본방언의 어찌자리토의 형태는 [처소], [방향], [보고(報告)], [방편], [비교] 등의 의미특성에 의하여 선별된다. 즉 [처소]일 때는 {－에／－예／－의／－되}, {－신되／－안되／－아되}, {－상에} 등이, [방향]일 때는 {－드레／레}가, [보고]일 때는 {－마라}가, [방편]일 때는 {－으로／－로}가, [비교]일 때는 {－보담／－마치／－만이／－처럼}이 각각 실현된다.⁴¹⁾

41) 여기서 함께자리토 (共同格助詞) {－광}, {－이영／영}, {－하곡} 등을 제외시킨 것은 이것들이 이음토 (接續助詞)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며, 따옴자리토 (引用格助詞) {－인}을 제외시킨 것은 이것들이 이음씨끝 (接續語尾)으로 처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報告)'의 어찌자리토 {－마라}와 함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5.1. { -에 / -예 / -의 / -디 }

5.1.1. 실현환경

본방언의 어찌자리토 { -에 }, { -예 }, { -의 }, { -디 } 등은 표준어의 { -에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 (31) a. 가이 바당에 갓단, (그 아이 바다에 갔다가,)
 b. 성이 서구포에 강완, (형이 서귀포에 갔다와서,)
 c. 펜지가 마리에 이시난, (편지가 마루에 있으니까,)
 d. 생이가 조코고리에 안지난, (새가 조이삭 꼭대기에 앉으니까,)
 e. 새백의 올렐 강 보난, (새벽에 집어귀에 가서 보니까,)
 f. 가네 집의 가면, (그 아이네 집에 가면,)
 g. 어멍이 밧디 가멍, (어머니가 밭에 가면서,)
 h. 솟디 지술 술만시메, (술에 감자를 찌고 있으니까,)

(31)에서 표준어는 { -에 } 하나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비해, 본방언은 { -에 }, { -예 }, { -의 }, { -디 } 등 네 개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이것들의 실현환경을 살펴 보면, (31a), (31b)의 { -에 }는 선행체언의 말음에 관계없이 실현되고 있는데, { -예 }, { -의 }, { -디 } 등의 자리에 나타나는 일이 없고, (31c), (31d)의 { -예 }는 선행체언의 말음이 ‘ | ’모음일 때 실현되고 있는데, { -에 }, { -의 }, { -디 } 등의 자리에 나타나는 일이 없으며, (31e), (31f)의 { -의 }⁴²⁾는 [+시간성], [

42) { -의 }의 용례 : 밤의, 집의, 낮의, 아침의, 새벽의 ……

+장소성]의 선행체언과 그 말음이 자음으로 끝날 때 실현되고 있는데, { -에 }, { -예 }, { -되 } 등의 자리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 그리고, (31g), (31h)의 { -되 }⁴³⁾는 [+장소성]의 선행체언과 그 말음이 ‘ㅅ’으로 대표될 때 실현되고 있는데, { -에 }, { -예 }, { -의 } 등의 자리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 -에 }, { -예 }, { -의 }, { -되 } 등은 형태·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로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5.1.2. 기능적 의미

표준어의 { -에 }와 같은 기능을 가진 { -에 / -예 / -의 / -되 }는 풀이씨가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의 시간과 처소를 표시한다.

(32) a. 느 학교에 강 왔다? (너 학교에 갔다가 오고 있는
냐?)

b. 가이 아방은 그 날리에 돌아갓수광? (그 아이의 아버
지는 그 난리에 돌아가셨습니까?)

c. 밤의 보릴 시꺼집디강? (밤에 보리를 실어졌습니까?)

d. 가이가 죽갓되 안즈난, (아이가 곁에 앉으니까,)

(32a)의 { -에 }, (32b)의 { -예 }, (32c)의 { -의 }, (32d)의 { -되 }는 모두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 -에 / -예 / -의 / -되 }의 의미는 { -에서 / -에서 / -의서 / -되서 }와 비교함으로써 더 뚜렷해진다.

43) { -되 }의 용례: 밧되, 솟되, 죽갓되, 베갓되 ……

- (33) a. 느 바당 { 예, *에서 } 감다? (너 바다에 가느냐?)
 b. 가인 올레 { 예, *에서 } 간 놀았느냐? (그 아이는 집어
 귀에 가서 놀고 있느냐?)
 c. 가인 집 { 의, *에서 } 가졌느냐? (그 아이는 집에 가
 지고 있을까?)
 d. 느 밧 { 디, *디서 } 강 언제 올터? (너 밧에 가서 언
 제 오겠느냐?)
 e. 가인 쫓사 학교 { *예, 에서 } 집의 와선게. (그 아이
 는 조금 전에 학교에서 집에 왔더라.)
 f. 가인 산굼부리 { *예, 에서 } 집드레 감선게. (그 아이
 는 산굼부리에서 집으로 가고 있더라.)
 g. 가인 잔칫집 { *의, 의서 } 느네 집드레 감선게. (그
 아이는 잔칫집에서 너의 집으로 가고 있더라.)
 h. 느네 아신 밧 { *디, 디서 } 집드레 올 생각을 안 했
 선게. (너의 아우는 밧에서 집으로 올 생각을 안 하
 고 있더라.)

(33a), (33b), (33c), (33d)에서는 { -에 / -예 / -의 / -디 } 는 선택되고 { -에서 / -에서 / -의서 / -디서 } 는 안 쓰이고 있으나, (33e), (33f), (33g), (33h)에서는 이와 반대로 { -에서 / -에서 / -의서 / -디서 } 는 선택되고, { -에 / -예 / -의 / -디 } 는 안 쓰이고 있다. 이것은 { -에 / -예 / -의 / -디 } 와 { -에서 / -에서 / -의서 / -디서 } 의 의미가 다른 데서 오는 결과이다. 즉 전자가 “움직임이 닿는데 (落着點)”를 뜻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데 (出發點)”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찌자리토 { -에 / -예 / -의 / -되 } 는 { -서 } ⁴⁴⁾ 와 결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 -에 / -예 / -의 / -되 } 와 { -에서 / -예서 / -의서 / -되서 } 가 ‘살다’, ‘놀다’, ‘남다’, ‘줄다’ 등의 비이동동작의 풀이씨와 결합 때에는 그 의미가 동일하게 “움직임이 되는 데”로 나타난다.

- (34) a. 그 사람이 느네 집 { 의, 의서 } 사난, (그 사람이 너의 집에서 사니까,)
 b. 애기가 마당 { 예, 예서 } 놀았시메, (아기가 마당에서 놀고 있으니까,)
 c. 성은 밭 { 되, 되서 } 남았단, (형은 밭에서 남았다가,)
 d. 가이 마리 { 예, 예서 } 줄단, (그 아이 마루에서 줄다가,)

(34a) 는 { -의 } 와 { -의서 } 를, (34b) 는 { -예 } 와 { -예서 } 를, (34c) 는 { -되 } 와 { -되서 } 를, (34d) 는 { -예 } 와 { -예서 } 를 각각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 -에 / -예 / -의 / -되 } 와 { -에서 / -예서 / -의서 / -되서 } 의 의미가 같은 데서 오는 결과

44) 박양규(1972:37)는 현대국어의 후치사 「서」가 중세국어의 ‘이시다’의 어찌꼴 ‘셔’에서 발달된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과정은 본방언에서 나타난다.

- 예) a. 성님 방에 셔?
 b. 성님 방에 셔 미신 걸 햄수광?
 c. 성님 방에서 미신 걸 햄수광?

이다. 즉 이것들은 모두 “움직임이 되는 데”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5.1.3. 통사적 특성

본방언의 어찌자리토 { 一에 / 一예 / 一의 / 一디 }가 관여하는 통사구조는 표준어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5.1.3.1. NP (이 / 가) NP₂ (에) NP

(34) a. 어명이 육지 (에) 가부난, (어머니가 육지에 가버리니까,)

b. 고장이 드르에 하영 피난, (꽃이 들에 많이 피니까,)

c. 가인 집의 오단, (그 아이는 집에 오다가,)

d. 성은 베곗디 성 잇단, (형은 바깥에 서 있다가,)

e. 그 옷은 저슬에 도스키여, (그 옷은 겨울에 따뜻하겠다.

f. 거긴 하루에 못 갈거난, (거기는 하루에 못 갈 것이니까,)

g. 생기리가 비예 젖어부난, (무우말랭이가 비에 젖어버리니까,)

h. 냥 가쟁이가 벚름에 꺼꺼지난,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어지니까,)

(34)의 예들은 모두 “NP₁ (이 / 가) NP₂ (에) VP”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 一에 }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 보면, 선행체언 (NP₂)은 (34a)의 ‘육지’, (34b)의 ‘드르 (들)’, (34c)의 ‘집’, (34d)의 ‘베곗 (바깥)’, (34e)의 ‘저슬 (겨울)’, (34

f)의 ‘흐루’, (34g)의 ‘비’, (34h)의 ‘벼름(바람)’ 등과 같이 [+시간성]과 [+공간성]의 의미특성을 가지고 있고, 풀이씨(VP)는 (34a)의 ‘가다’, (34b)의 ‘피다’, (34c)의 ‘오다’, (34d)의 ‘서다’, (34e)의 ‘뒹다(따뜻하다)’, (34f)의 ‘가다’, (34g)의 ‘젖다’, (34h)의 ‘꺾다’ 등과 같이 제움직씨거나 그림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에}는 선행체언이 [－유정물], [+시공성]이면서, 풀이씨가 제움직씨거나 그림씨일 때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에}가 잡음씨(指定詞) ‘－이다’와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때 NP₂는 평가 대상의 기준적 단위가 된다.

- (35) a. 돌이 혼 마리에 ○○원이우다. (도미가 한 마리에 ○○원입니다.)
 b. 곤쌀 혼 말에 ○○원이우다. (쌀이 한 말에 ○○원입니다.)

(35a)의 {－에}와 (35b)의 {－에}는 모두 지정사 ‘－이다’와 공기(共起)되고 있다. 여기서 NP₂는 (35a)의 ‘혼 마리’, (35b)의 ‘혼 말’ 등과 같이 “평가 대상의 기준적 단위”가 되고 있다.

5.1.3.2. NP₁ (이/가) NP₂ (에) NP₃ (을/를) VP

- (36) a. 난 으쓷시에 가일 만날건디, (나는 여섯시에 그 아이를 만날 것인데,)
 b. 난 한밤의 식젤 먹영, (나는 한밤에 제사를 지내고서,)

c. 도새기가 도구리에 것을 다 먹어지난, (돼지가 먹이통
에 먹이를 다 먹어지니까,)

d. 나 솟되 감절 치단, (내가 술에 고구마를 찌다가,)

(36a), (36b), (36c), (36d) 등은 모두 “NP₁ (이/가) NP₂ (에) NP₃ (을/르) VP”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 -에 }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 보면, 선행체언(NP₂)은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이름씨(名詞)로 나타나고 있고, 풀이씨(VP)는 남움직임씨(他動詞)로 나타나고 있다.

5.1.3.3. NP₁ (이/가) NP₂ (에) NP₃ (에) VP

(37) a. 췌가 대낮의 수박밭되 들언, (소가 대낮에 수박밭에
들어서,)

b. 나가 아침의 점빵에 이시킨, (내가 아침에 가게에 있
으니까,)

c. 망앞⁴⁵⁾의 외돌괴⁴⁵⁾에 피기 잘 무난, (망앞에 외돌괴
에 고기가 잘 무니까,)

d. 정월 멥질날 새벽의 켜당덜이 오란, (설날 새벽에 친
척들이 와서,)

(37a), (37b), (37c), (37d) 등은 모두 “NP₁ (이/가) NP₂ (에) NP₃ (에) VP”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 -에 }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 보면, 선행체언(NP₂와 NP₃)은 (37a)의 ‘대낮’과 ‘수박밭’, (37b)의 ‘아침’과 ‘점빵’, (37c)의 ‘망앞’

45) 서귀포 시내에서 서쪽으로 3 km 정도 떨어진 해안명과 기암바위

과 ‘외돌피’, (37d) ‘정월명절’과 ‘새벽’ 등과 같이 ‘시간’과 ‘처소’를 나타내는 이름씨로 나타나고 있고, 풀이씨(VP)는 (37a)의 ‘들다’, (37b)의 ‘잇다(있다)’, (37c)의 ‘물다’, (37d)의 ‘오다’ 등과 같이 제움직씨 또는 있음 그림씨(存在形容詞)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NP₂와 NP₃의 배열 관계는 첫째, 시간성의 NP와 공간성의 NP가 섞여 나타날 때는, (37a)와 (37b)와 같이 시간성의 NP가 공간성의 NP보다 선행하고 있고, 둘째, 공간성의 NP끼리 겹칠 때는, (37c)와 같이 공간의 영역이 넓은 것이 작은 것보다 선행하고 있으며, 셋째, 시간성의 NP끼리 겹칠 때는, (37d)와 같이 시간의 영역이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선행하고 있다.

5.2. { -신디 / -안티 / -아피 }

5.2.1. 실현환경

본방언에서는 { -에 / -예 / -의 / -디 }는 [-유정물]에 첨가되는 처소성 어찌자리토인데 비해, { -신디 / -안티 / -아피 }는 [+유정물]에 첨가되는 처소성 어찌자리토이다. 여기서 { -신디 / -안티 / -아피 }는 서로 교체될 수 있는 것으로서 표준어의 { -께 / -에게 / -한테 / -더러 }와는 달리 자유변이의 관계에 놓인다.

(38) a. 아방 { 신디, 안티, 아피 } 신문 안네라.

a'. 아버지 { 께, 에게, *한테, *더러 } 신문을 드려라.

b. 누개가 가이 { 신디, 안티, 아피 } 그런 일 시겨시니?

b'. 누구가 그 아이 { *께, 에게, 한테, 더러 } 그런 일을 시켰느냐?

(38a), (38b)는 본방언이고, (38a'), (38b')는 표준어이다. 여기서 표준어는 [+높임] (－께), [±높임] (－에게), [－높임] (－한테, －더러) 등으로 등분되고 있으나, 본방언은 이러한 등분이 없이 자유롭게 교체되어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방언의 {－신되}, {－안되}, {아되} 등은 자유변이의 관계를 가진다.

5.2.2. 기능적 의미

{－신되/－안되/－아되}는 표준어의 {－에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풀이씨의 상태나 행위가 닿는 유정물(有情物)의 위치를 표시한다.

(39) a. 그거랑 아방 {신되, 안되, 아되} 배우라. (그것은 아버지에게 배워라.)

b. 이 책을 가이 {신되, 안되, 아되} 주라. (이 책을 그 아이에게 주어라.)

(39a)의 {－신되/－안되/－아되}는 배우는 행위가 닿는 ‘아방(아버지)’의 위치를 말하고 있고, (39b)의 {－신되/－안되/－아되}는 책을 주는 행위가 닿는 ‘가이(그 아이)’의 위치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신되/－안되/－아되}의 형태소화 과정⁴⁶⁾을 살펴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46) 강정희(1983:72)는 본방언의 {－신되/－안되/－아되}의 형태소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밝히고 있다.

ㄷ+이/의	→	관형형	+	되	→	N ₂	+	{신+되}
어휘 범주		문법 범주		어휘 범주		문법 범주		어휘 범주
		{[+처소성]}		+되 (문법범주)				+되 (문법범주)
(1 차단계)		{앞, 안}						(3 차단계)
				(2 차단계)				

(40) a. 어명 신 디 강 보게. (어머니가 있는 데에 가서 보자.)

a'. 어명신디 강 보게. (어머니에게 가서 보자.)

b. 방 안티 보선이 어시난, (방 안에 버선이 없으니까,)

b'. 누이안티 보선이 어시난, (누이에게 버선이 없으니까.)

c. 가이 앞의 책 이성게. (그 아이 앞에 책이 있더라.)

c'. 가이아피 책 이성게. (그 아이에게 책이 있더라.)

(40a)의 ‘신 디’, (40b)의 ‘안티’, (40c)의 ‘앞의’ 등은 문법화되기 이전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40a')의 {－신디}, (40b')의 {－안티}, (40c')의 {아피} 등은 문법화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신디}는 ‘이시다’의 매김꼴(冠形詞) ‘신’과 장소를 나타내는 ‘디’의 결합으로, {－안티}는 위치를 나타내는 ‘안ㅎ’⁴⁷⁾과 장소를 나타내는 ‘디’의 결합으로, {－아피}는 위치를 나타내는 ‘앞’과 어찌자리토 ‘의’의 결합으로 각각 이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디/－안티/－아피}는 유정물의 ‘앞’, ‘뒤’, ‘있는 곳’, ‘안(內)’ 등의 위치를 뜻한다.

{－신디/－안티/－아피}는 이러한 의미로 인하여 토씨들끼리의 배열관계에서 제 1 순위를 차지한다.

(41) a. 가이신뉘로부터 열락 온 거 어시냐? (그 아이에게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 없느냐?)

47) ‘안ㅎ’은 15세기 ㅎ종성체언임.

- b. 가이신되레 ㄱ지가 시험에 부름직하다. (그 아이에게로 ㄱ지가 시험에 붙을 것 같다.)
- c. 가이신되레 ㄴ라도 별초 가렌 돌아불라. (그 아이에게로 보고도 별초하러 가라고 말하여 버려라.)
- *d. 아방레신되 ㄱ지만은 쏸지 말아 줍서. (아버지에게로까지만은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41)은 본방언의 토씨들의 배합관계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 (41a), (41b), (41c)는 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는데 비해, (41d)는 비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신되’가 제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토배합의 규칙⁴⁸⁾을 어겼기 때문에 이뤄진 결과이다.

5.2.3. 통사적 특성

{-신되/-안되/-이되}는 “NP₁(이/가) NP₂(신되) VP”의 구조와 “NP₁(이/가) NP₂(을/르) NP₃(신되) VP”의 구조 속에서 실현된다.

- (42) a. 나 어명신의 가난, (내가 어머니에게 가니까,)
- b. 국어책이 가이신되 이신가? (국어책이 그 아이에게 있을까?)
- c. 나 가이신되 책을 주난, (내가 그 아이에게 책을 주니까,)

48) 본방언의 토씨의 연결규칙은, “P₁(처소) + P₂(방향) + P₃(도달) + P₄(한정) + …… + P_n(문법적 관계)”로 세울 수 있다. 여기서 P는 토씨를 말하며, 괄호 속의 말은 P의 의미를 뜻한다.

d. 그 일이랑 가인신티 시키라. (그 일은 그 아이에게 시켜라.)

(42a), (42b)는 “NP₁ (이/가) NP₂ (신티) VP”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42c), (42d)는 “NP₁ (이/가) NP₂ (을/르) NP₃ (신티) VP”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 -신티 }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 보면, 첫째, “NP₁ (이/가) NP₂ (신티) VP”의 구조에서는 선행체언 (NP₂)은 [+유정물]로, 풀이씨 (VP)는 제움직씨거나 있음 그림씨 (存在形容詞)로 각각 나타나고 있고, 둘째, “NP₁ (이/가) NP₂ (을/르) NP₃ (신티) VP”의 구조에서는 선행체언 (NP₃)은 [+유정물]로 풀이씨 (VP)는 남움직씨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사적 특성은 { -신티 / -안티 / -이피 }가 문법화되기 이전과 문법화된 이후의 통사적 특성을 아울러 가지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3. { -상에 }⁴⁹⁾

5.3.1. 실현 환경

{ -상에 }는 방언의 { -신티 }와 표준어의 { -에게 }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선행체언이 [+인간]일 때만 실현된다.

(43) a. 난 느상에 애돈 일 었다. (나는 너에게 토라진 일이 없다.)

* a'. 난 쉼상에 애돈 일 었다. (나는 소에게 토라진 일이 없

49) 상에 = 「 상 (‘그것에 있어 그것에 관한’의 뜻을 지닌 접미사) 」
+ 「 에 (어찌자리토) 」

다.)

b. 느 아방상에 걸어진 일 이시민, (너 아버지에게 걸어진 일이 있으면,)

*b'. 느 강생이상에 걸어진 일 이시민, (너 강아지에게 걸어진 일이 있으면,)

(43a), (43b)는 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는데 비해, (43a'), (43b')는 비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43a')와 (43b')의 {－상에}의 선행체언이 '췌'와 '강생이'등과 같이 [－인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에}의 실현은 그 선행체언의 의미특성이 [+인간]일 때 한정된다.

5.3.2. 기능적 의미

{－상에}는 표준어 {－에게}로 대역은 되지만, {－에게}의 의미와는 다르다. 즉 {－상에}는 풀이씨의 상태나 행위가 닿는 유정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정체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44) a. 가이 느상에 썩썩한 일이 어설꺼여, (그 아이는 너에게 썩썩한 일이 없을 것이다.)

b. 난 아주망상에 썩썩한 일이 하나토 엇수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썩썩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c. 난 느상에 애돈 일 엇다. (나는 너에게 토라진 일이 없다.)

d. 난 아방상에 걸어진 일 엇수다. (나는 아버지에게 걸어진 일이 없습니다.)

(44)에서 { -상에 }와 공기되는 풀이씨를 보면, (44a)와 (44b)는 ‘섬섬하다’로, (44c)는 ‘애들다 (토라지다)’로, (44d)는 ‘걸어지다’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 풀이씨들은 문장상에서 “○와 ○○의 관계”를 풀이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와 ○○의 관계”에 첨가되는 { -상에 }는 [+관계]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5.3.3. 통사적 특성

{ -상에 }는 “NP₁ (이/가) NP₂ (상에) VP”의 구조 속에서 실현되는데, 이 구조는 { -상에 }의 통사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개 안은월 (上位文) 속의 임자마디 (NP-Complement)로 내포되어 쓰인다.

(45) a. 느 아방상에 애들안다? (너 아버지에게 토라졌느냐?)

b. 느 아방상에 애돈 일 이시냐? (너 아버지에게 토라진 일이 있느냐?)

(45a)는 “NP₁ (이/가) NP₂ { 상에 } VP”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45b)는 (45a)를 내포하는 명사구 보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45b') [느 [(느) [아방상에 애돈] VP] § 일 [이시냐]
VP] s₀

(45b')는 (45b)의 속구조이다. 여기서 보면 (45b)는 (45a)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 -상에 }와 보문명사 ‘일’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5.4. { ㄴ드레⁵⁰⁾ / ㄴ레 }

5.4.1. 실현 환경

{ ㄴ드레 / ㄴ레 } 는 표준어의 방향성 어찌자리토 { ㄴ으로 / ㄴ로 } 와 그 뜻이 통할 뿐만 아니라, 실현환경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46) a. { 이, 그, 저 } 레 안집서.

a'. { 이, 그, 저 } 리로 앉으십시오.

b. 가인 동드레 감선게.

b'. 그 아이는 동으로 가고 있더라.)

c. 췌가 밧드레 가가난,

c'. 소가 밧으로 가고 있으니까,

d. 바당드레 가당 보민.

d'. 바다로 가다가 보면,

(46a), (46b), (46c), (46d) 는 본방언이고, (46a'), (46b'), (46c'), (46d') 는 표준어이다. 여기서 본방언 { ㄴ드레 } 와 표준어 { ㄴ으로 } 는 선행체언의 발음이 자음일 때 실현되고 있고, 본방언 { ㄴ레 } 와 표준어 { ㄴ로 } 는 선행체언의 발음이 모음일 때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방언과 표준어의 방향성 어찌자리토의 실현환경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50) { ㄴ드레 } 의 변이형태는 { ㄴ데레 }, { ㄴ르레 }, { ㄴ레레 }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 ㄴ르레 } 와 { ㄴ레레 } 는 선행체언의 발음이 'ㄴ' 일 때 실현된다.

5.4.2. 기능적 의미

{ -드레 / -레 }의 기능적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표준어의 { -으로 / -로 }와 같이 [방향]으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표준어의 { -에 / -에게 }와 같이 [처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미의 분화는 모두 풀이씨의 특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 (47) a. 가이 동드레 감서라. (그 아이 동으로 가고 있더라.)
 b. 가이 이레 완선개. (그 아이 이리로 오고 있더라.)
 c. 그 감절 푸대레 답으라. (그 고구마를 포대에 담아라.)
 d. 이 화털 삼방 구석드레 노라. (이 화로를 대청 구석에 놓아라.)
 e. 느 그걸 날드레 주엄다? (너 그것을 나에게 주고 있느냐?)
 *f. 나 이걸 아방드레 받았수다. (제가 이것을 아버지에게서 받았읍니다.)

(47a)와 (47b)의 { -드려 / -레 }는 ‘가다’, ‘오다’ 등의 이동동작의 제움직씨와, (47c)와 (47d)의 { -드레 / -레 }는 ‘답다’, ‘놓다’ 등의 처치관계의 남움직씨와, (47e)의 { -드레 }는 ‘주다’ 등의 남움직씨와 각각 걸리고 있다. 여기서 { -드레 / -레 }가 이동동작의 제움직씨와 걸리면 [방향]의 의미로, 처치관계(處置關係)의 남움직씨(他動詞)와 걸리면 [처소]의 의미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본방언의 언중들은 { -드레 / -레 }의 주된 기능으로 [방향]을 인식하고, 부차적인 기능으로 [처소]를 인식한다. 이러한

근거로 { -드레 / -레 }가 표준어의 { -에게 }에 해당하는 { -신되 / -안되 / -아되 }에 후접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48) a. 그걸 나신되레 주엄다? (그것을 나에게로 주고 있느냐?)

*a'. 그걸 나레신되 주엄다? (그것을 나로에게 주고 있느냐?)

b. 나 이걸 아방신되 받았수다. (내가 이것을 아버지에게 받았읍니다.)

*b'. 나 이걸 아방드레 받았수다. (내가 이것을 아버지으로 받았읍니다.)

(48a)와 (48b)는 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으나, (48a')와 (48b')는 비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48a')와 (48b')가 { -신되 }와 { -드레 / -레 }의 배합규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 -드레 / -레 }가 원래 { -신되 }와 다른 기능 즉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4.3. 통사적 특성

{ -드레 / -레 }는 그 기능적 의미에 따라 그 구조가 달라진다. 즉 { -드레 / -레 }의 의미가 [방향]일 때는 “NP₁ (이 / 가) NP₂ (드레) VP”로 [처소]일 때는 “NP₁ (이 / 가) NP₂ (을 / 리) NP₃ (드레) NP”로 각각 나타난다.

(49) a. 그 사람 바당드레 갑디다. (그 사람 바다로 가던데요.)

b. 가이가 정지레 가가난, (그 아이가 부엌으로 가고 있으니 까,)

c. 느 그 낭을 마당드레 노라. (너 그 나무를 마당에
놓아라.)

d. 느 이걸 아방드레 안네라. (너 이것을 아버지에게 드
려라.)

(49a), (49b)는 “NP₁ (이/가) NP₂ (드레) VP”의 구조를, (49c), (49d)는 “NP₁ (이/가) NP₂ (을/르) NP₃ (드레) VP”의 구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드레}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 보면, 첫째, “NP₁ (이/가) NP₂ (드레) VP”의 구조에서는 선행체언은 [－유정물]로, 풀이씨(VP)는 이동동작의 제음직씨로 각각 나타나고 있고, 둘째, “NP (이/가) NP₂ (을/르) NP₃ (드레)VP”에서는 선행체언(NP₃)은 [－유정물]로, 풀이씨(VP)는 처치관계의 남음직씨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5.5. {－마라} ⁵¹⁾

5.5.1. 실현환경

{－마라}는 표준어의 {－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선행체언이 ‘보고(報告)’ 또는 ‘화제(話題)’의 대상일 때 실현된다.

(50) a. 이것마란 허벅이엔 한다.

a'. 이것 보고는 물둥이라고 한다.

b. 어명은 가이마라 검질 매랜 꼴으난.

51)강정희(1983:73)는 {－마라}를 중세국어의 잃는다.(云, 日, 謂……)의 ‘준다’ 줄기에 어찌꼴 씨끝(副詞形語尾) ‘－아’가 결합된 형식으로 보고 있다.

b'. 어머니는 그 아이보고 김을 매라고 말하니까.)

(50a)의 ‘화제(話題)’의 대상은 ‘이것’이고, (50b)의 ‘보고(報告)’의 대상은 ‘가이(그 아이)’이다. 그러므로 {－ㄴ라}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때만 실현된다.

5.5.2. 기능적 의미

{－ㄴ라}의 의미는 표준어의 {－보고}와는 달리 [보고(報告)] 또는 [화제(話題)]로 나타난다. 이것은 {－신되／－안되／－아되}와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51) a. 느 아방 {신되, 안되, 아되, *ㄴ라} 강 보라. (너 아버지에게 가서 보아라.)

b. 느 어멍 {신되, 안되, 아되, *ㄴ라} 욱 먹언다? (너 어머니에게 욱을 들었느냐?)

c. 우리가 가이 {신되, 안되, 아되, *ㄴ라} 책을 주었수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d. 사름덜이 여기 {ㄴ라, *신되, *안되, *아되} 모관이엔 혼다.
(사람들이 여기보고 제주라고 한다.)

e. 아방은 날 {ㄴ라, *신되, *안되, *아되} 성신될 갓당 오랜 쏘읍디다. (아버지는 나보고 형에게를 갔다가 오라고 말했습니다.)

f. 놈덜이 늘 {ㄴ라, *신되, *안되, *아되} 무시거엔 쏘는 줄 알암서? (남들이 너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 있느냐?)

g. 난 느네 어멍 {신되, 안되, 아되, ㄴ라} 학교 안 간 늘

尾) 과 안은월 (上位文) 의 풀이씨와 공기관계 (共起關係) 를 가진다.

(52) a. 가인 나ㄴ라 집의 갓당 오켄 흥연게. (그 아이는 나
보고 집에 갔다가 오겠다고 하더라.)

b. 나가 어멍ㄴ라 잔칫집의 갓당 오쿠덴 졸으난.(내가 어
머니보고 잔칫집에 갔다가 오겠다고 말하니까,)

c. 나가 누이ㄴ라 감취 맛이 그만이엔 졸으난, (내가 누
이보고 식혜 맛이 그만이라고 말하니까,)

d. 나가 가이ㄴ라 췌이 고망에도 벳 뜰 날이 잇넌 졸으
난, (내가 그 아이보고 쥐 구멍에도 별 뜰 날이 있
네라고 말하니까,)

e. 나가 누이ㄴ라 김녕사굴에 큰 베염이 살앗젠 졸으난,
(내가 누이보고 김녕사굴에 큰 뱀이 살았다고 말하
니까,)

f. 어멍ㄴ라 아시가 공뵐 안 헛수젠 졸으난.(어머니 보고
동생이 공부를 안했었다고 말하니까,)

g. 그 사람ㄴ라 날 도와주어사 홉주긴 흥난, (그 사람보
고 나를 도와주어야 하지요라고 하니까,)

h. 가이ㄴ라 집의 감시넌 흥난, (그 아이보고 집에 가고
있느냐고 하니까,)

i. 가이ㄴ라 범벅 먹을텐 물어보난, (그 아이보고 범벅을
먹겠느냐고 물어 보니까,)

j. 아시ㄴ라 공뵐 흥연덴 물으난, (동생보고 공부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k. 할망ㄴ라 무사 고집을 부림수젠 흥난, (할머니보고 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l. 가이ㄴ라 피기 나끄레 가젠 ㅎ난, (그 아이보고 고기
낙으러 가겠느냐고 하니까,)

m. 가이ㄴ라 는 어떻흔 아인딘 ㅎ난, (그 아이보고 너는
어떻게 된 아이냐고 하니까,)

n. 가이ㄴ라 는 어떻흔연 오라저닌 ㅎ난, (그 아이 보고
너는 어떻게 하여서 와졌느냐고 하니까,)

o. 어떻ㄴ라 그 사람이 미신 인정이 심네쥬 꼴으난, (어
머니보고 그 사람이 무슨 인정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
니까,)

p. 나가 가이ㄴ라 책 보렌 꼴으난, (내가 그 아이보고
책을 보라고 말하니까,)

q. 그 사람ㄴ라 정심밥이나 ㅎ썰 줌쥬 ㅎ난, (그 사람
보고 정심밥이나 조금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r. 가이ㄴ라 바당에 가젠 ㅎ난, (그 아이보고 바다에 가
자고 하니까,)

(52)에서 {－ㄴ라}의 통사적 특성은 두 가지 공기관계로 나
타나고 있다.

첫째, {－ㄴ라}는 안은월(上位文)의 풀이씨와 공기관계를 맺고
있다. 즉 (52b), (52c), (52d), (52e), (52f), (52o), (52p) 등에
실현되는 {－ㄴ라}는 안은월(上位文)의 풀이씨 ‘존다(云, 日,
謂)’와 공기되고 있고, (52a), (52g), (52h), (52k), (52l),
(52m), (52n), (52q), (52r) 등에 실현되는 {－ㄴ라}는 안

은월(上位文)의 풀이씨 ‘하다’와 공기되고 있으며, (52i), (52j) 등에 실현되는 {－ㄴ라}는 안은월(上位文)의 풀이씨 ‘묻다’와 공기되고 있다. 여기서 상위문의 풀이씨 ‘하다’는 ‘존다’와 ‘묻다’를 대응하고 있으므로, (52)에서 {－ㄴ라}와 공기되는 상위문의 풀이씨는 ‘존다’와 ‘묻다’로 압축된다.

둘째, {－ㄴ라}는 ‘안긴월(內包文)’의 사실을 묶는 이음씨 끝과 공기 관계를 맺고 있다. 즉 (52a), (52b), (52c), (52d), (52e) (52f), (52g) 등에 실현되는 {－ㄴ라}는 {－켄／－덴／－엔／－넌／－젠／－젠／－긴}과, (52h), (52i), (52j), (52k), (52l), (52m), (52n), (52o) 등에 실현되는 {－ㄴ라}는 {－넌／－텐／－덴／－젠／－젠／－딘／－닌／－젠}과, (52p), (52q) 등에 실현되는 {－ㄴ라}는 {－랜／－센}과, (52r)에 실현되는 {－ㄴ라}는 {－젠}과 각각 공기되고 있다. 여기서 {－켄／－덴／－엔／－넌／－젠／－젠／－긴}은 안긴월(內包文)이 배플월(叙術文)일 때, {－넌／－텐／－덴／－젠／－젠／－딘／－닌／－젠}은 안긴월이 물음월(疑問文)일 때, {－랜／－센}은 안긴월이 시킴월(命令文)일 때, {－젠}은 안긴월이 꺾임월(請誘文)일 때 각각 실현되는 것으로서 모두 이음씨 끝 {－인}을 포함하고 있다.⁵²⁾

이와 같이 볼 때, {－ㄴ라}는 표준어의 {－보고}와는 다른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ㄴ라}가 풀이씨 ‘존다(日, 謂)’에서 형태소화되어서 직접인용문을 이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52) 성낙수(1984:105)는 본방언의 직접인용법의 이음씨끝을 {－인}으로 보고, 그 변이형태로 /잉/을 들고 있다.

5.6. { -으로 / -로 }

5.6.1. 실현환경

{ -으로 / -로 } 는 본방언의 어찌자리토 가운데 유일한 표준어 형태이다. 그러므로 실현환경도 표준어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53) a . 느 양손으로 검질 매라.

a' . 너 양손으로 김을 매어라.

b . 나 골채로 작질 날르단,

b' . 내 삼태기로 돌자갈을 나르다가,

(53a), (53b) 는 본방언이고, (53a'), (53b') 는 표준어이다. 여기서 (53a) 와 (53a') 의 { -으로 } 는 선행체언의 말음이 자음일 때 실현되고 있고, (53b) 와 (53b') 의 { -로 } 는 선행체언의 말음이 모음일 때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 -으로 } 와 { -로 } 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이다.

그런데 선행체언의 말음이 'ㄹ' 일 때는 위와 같은 음운론적 조건에 들어 맞지 않는다.

(54) a . 느 썬돌로 호밀 쏴라.

a' . 너 숫돌로 낫을 갈아라.

(54a) 는 본방언이고, (54a') 는 표준어이다. 여기서 (54a) 와 (54a') 의 { -로 } 는 그 선행체언의 말음이 자음 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되고 있다.

5.6.2. 기능적 의미

{ -으로 / -로 } 의 기능적 의미는 재료, 도구, 수단, 자격, 원인,

경과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 -으로 / -로 }의 선행채언과 풀이씨에 의하여 이뤄진다.

(55) a. 어명이 험벽으로 바놓절랄 맨드랑, (어머니가 형겅으로 바늘꽃이를 만들어서,)

b. 아방이 호미로 출 비단, (아버지가 낫으로 풀을 베나가,)

c. 할망은 탄약으로 병을 고환 햇수게. (할머니는 한약으로 병을 고쳤읍니다)

d. 가일 늑으로 불령 읍디강? (그 아이를 일꾼으로 불러서 왔읍니까?)

e. 낭이 태풍으로 꺾꺼지난, (나무가 태풍으로 꺾어지니까,)

f. 췌이가 담고망으로 들어간, (쥐가 담구멍으로 들어가서,)

(55a)의 { -으로 }는 [재료]의 의미로, (55b)의 { -로 }는 [도구]의 의미로, (55c)의 { -으로 }는 [수단]의 의미로, (55d)의 { -으로 }는 [자격]의 의미로, (55e)의 { -으로 }는 [원인]의 의미로, (55f)의 { -으로 }는 [경과]의 의미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5.3.6. 통사적 특성

{ -으로 / -로 }의 통사구조는 그 의미가 [원인]일 때는 “NP₁ (이/가) MP₂ {으로} VP”로 나타나고, [경과]·[자격]일 때는 “MP₁ (이/가) MP₂ {에서} NP₃ {으로} VP”로 나타나며, [재료]·[도구]·[수단]·[자격]일 때는 “NP₁ (이/가) NP₂ {으로} NP₃ (을/르) VP”로 나타난다.

- (56) a. 우리 어머은 뽕으로 돌아갓수다. (우리 어머니는 뽕으로 돌아가셨읍니다.)
- b. 도렝이가 땅고방에서 베갓되레 나오니까, (도렝이가 땅구멍에서 바갓으로 나오니까,)
- c. 아시가 낭 위턱서 밀으로 내려오단, (동생이 나무 위에서 밀으로 내려오다가,)
- d. 할난은 이디서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할란은 여기서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 e. 어머이 족대로 비차락을 멩그난, (어머니가 작은 대나무로 비를 만드니까,)
- f. 가이 마새로 험벽을 잘르단, (그 아이 가위로 험벽을 자르다가,)
- g. 가인 착헌 믑음으로 사릅들을 데해 주단 보난, (그 아이는 착한 심성으로 사람들을 데해 주다가 보니까,)
- h. 그 사릅은 이장으로 험 일다 헛수다. (그 사릅은 이장으로 할 일을 다 했읍니다.)

(56a)는 “NP₁ (이／가) NP₂ { 으로 } VP ”의 구조를, (56b), (56c), (56d) 등은 “NP₁ (이／가) NP₂ (에서) NP₃ { 으로 } VP ”의 구조를, (56e), (56f), (56g), (56h) 등은 “NP₁ (이／가) NP₂ { 으로 } NP₃ (을／르) VP ”의 구조를 각각 가지고 있다. 여기서 { —으로 }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 보면, 그 의미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인]일 때에는 (56a)와 같이 선행체언 (NP₂)은 [±인위적]이고 풀이씨 (VP)는 제움직씨로, [경과]

일 때에는 (56b), (56c)와 같이 선행체언(NP₃)은 [+장소성]이고 풀이씨(VP)는 이동동작의 제움직씨로, [재료]·[도구] 일 때에는 (56e), (56f)와 같이 선행체언(NP₂)은 [-유정물]이고 풀이씨(VP)는 남움직씨로, [수단]일 때에는 (56g)와 같이 선행체언(NP₂)은 [+인위적]이고 풀이씨(VP)는 남움직씨로, [자격]일 때에는 (56d), (56h)와 같이 선행체언(NP₂)은 [+인간]이고 풀이씨(VP)는 남움직씨(또는 제움직씨)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5.7. { -보담 / -초록⁵³⁾ / -만이 / -마치 }

5.7.1. 실현 환경

{ -보담 / -초록 / -만이 / -마치 }는 표준어의 { -보다 / -처럼 / -만큼 / -같이 }와 대응되는 것으로서 그 견줄의 방법⁵⁴⁾에 따라 각각 달리 실현된다.

(57) a. 누가 정보담 지레가 크기여. (너가 형보다 키가 크겠다.)

b. 사람도 크쟁 학민 곡식처럼 김질 매곡 걸음을 하여사,
(민담: 154)(사람도 크려고 하려면 곡식처럼 김을 매고 거름을 하여야,)

53) { -초록 }의 변이형태는 { -초록 }, { -처록 } 등으로 나타난다.

54) 허웅(1983:349)은 견줄말(대비어)을 표시하는 문법적 방법을 「견줄법」이라 하고, 견줄법을 나타내어 주는 토씨를 「견줄자리 토씨」로 규정하고 있다.

c. 누가 가이만 ^어만 조냥해도, (너가 그 아이만큼만 절약하여도,)

d. 큰년 ^ㄴ치 ^ㅅ지런헌 아이도 드물꺼라. (장녀같이 부지런한 아이도 드물 것이다.)

(57a)의 { -보담 }은 ‘견쥌급 견쥌’의 의미로, (57b)와 (57c)의 { -초록 / -만이 }는 ‘비슷한 견쥌’의 의미로, (57d)의 { -^ㄴ치 }는 ‘같음 견쥌’의 의미로 각각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 -보담 / -초록 / -만이 / -^ㄴ치 }는 그 의미에 의해 선택되고 있다.

5.7.2. 의미 및 통사적 특성

{ -보담 / -초록 / -^ㄴ치 }의 통사적 구조는 그 의미에 따라

① 「견쥌급 견쥌」의 구조, ② 「같음 견쥌」의 구조, ③ 「비슷한 견쥌」의 구조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5.7.2.1. 견쥌급 견쥌

견쥌급 견쥌에 관여하는 어찌자리토 { -보담 }은 두 가지 통사적 특성을 가진다.

첫째는 { -보담 }이 견쥌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풀이씨와 공기한 다.

(58) a. 이디가 거기보담 더 맨도롱 ^ㅎ다. (여기가 거기보다 더 따뜻하다.)

b. 이 김치가 그것보담 더 ^ㅎ다. (이 김치가 그것보다 더 짜다.)

*c. 이견 그거보담 ^ㄴ짱 ^ㅎ키여. (이것은 그것보다 나란하겠

다.)

*d. 는 정보담 지레가 마트키여. (너는 형보다 키가 같으
겠다.)

(58a), (58b)는 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으나, (58c), (58d)는 비
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58c), (58d)의 { -보담 }이 건
춤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그림씨(ㄱ짱하다. 마트다 등)와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 -보담 }과 걸릴 수 있는 풀이씨는 남
움직씨거나 건춤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림씨 등이 된다.

둘째는 { -보담 }이 임자씨(體身)에 첨가되어 그 임자씨와 다
른 월조각(文章成分)과의 이음관계(接續關係)를 나타낸다.

(58a') [S₀ [이디] NP [[[[거기] NP [멘도롱하다] VP] S
[Comp] [더]] Adv [멘도롱하다] VB] vp] S₀

(58b') [S₀ [이 짐치] NP [[[[그것] NP [츠다] VP] S
[Comp] [더]] Adv [츠다] VB] VP] S₀

(58a')와 (58b')는 (58a)와 (58a)의 속구조이다. 여기서 보
면, ' -보담 ' (Comparative)은 안긴월(內包文)을 안은월(上位文)
속에 내포시킬 때 필요한 이음토로 나타나고 있다.

5.7.2.2. 「 같음 건춤 」과 「 비슷한 건춤 」

「 같음 건춤 」의 { -마치 }와 「 비슷한 건춤 」의 { -츠록 / -만
이 }은 서로 같은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 -마치 }와
{ 츠록 / -만이 }는 ' 건춤 그림씨(比較形容詞) '나 ' 도움 그림씨
(補助形容詞) '와 걸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9) a. 이견 저것보담 나스키여. (이것은 저것보다 낫겠다.)

a'. 이견 저것 { *ㄴ치, *츄록, *만이 } 나스키여.

b. 나 가이ㄴ치 공뵈하고 시프다. (내가 그 아이같이 공부하고 싶다.)

b'. 나 가이 { *ㄴ치, *츄록, *만이 } 시프다.)

(59a)와 (59b)는 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으나, (59a')와 (59b')는 비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59a')와 (59b')의 { -ㄴ치/츄록 / -만이 }가 '비교 그림씨', '도움 그림씨'와 절릴 수 없기 때문이다.

6. 부름자리토 (呼格助詞)

부름자리토의 형태는 부르는 등급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높임]의 형태는 { -양 / -예 }로 [-높임]의 형태는 { -아 / -야 }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6.1. { -아 / -야 }

6.1.1. 실현환경

본방언의 { -아 / -야 }는 표준어와 동일한 것으로서 선행체언의 말음이 자음이면 { -아 }, 모음이면 { -야 }가 실현된다.

(61) a. 명길아, 어명신디 강 오라. (명길아, 어머니에게 가서 오

55) 여기서 { -마쑈 }이 제외된 것은 이것이 월조각으로서 일정한 자리(格)에 나타나지 않고, 담화의 초점에 따라 명사구, 동사구, 부사구, 접속문, 종결문 등에 자유로이 붙어다니기 때문이다.

너라.)

b. 순이야, 학교 가게. (순이야, 학교에 가자.)

(61a)는 { -아 }의 실현환경을, (61b)는 { -야 }의 실현환경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보면 { -아 }는 선행체언의 말음이 자음일 때, { -야 }는 선행체언의 말음이 모음일 때 각각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 -아 / -야 }는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서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이다.

6.1.2. 의미와 통사적 특성

[부름]의 의미를 가진 { -아 / -야 }는 “NP₁ (이 / 야), NP₂ (이 / 가) VP”의 구조 속에서 실현된다. 여기서 { -아 / -야 }의 통사적인 특성은, 선행체언과의 관계, 풀이씨의 마침법(終結法) 또는 앞선 씨끝(先語末語尾)과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 -아 / -야 }의 선행체언(NP₁)은 [+인간], [-존대]의 의미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 대이름씨(人稱代名詞)’로는 나타날 수 없다.

(62) a. 철이야, 느네 어명이 불렀시네. (철이야, 너의 어머니가 너를 부르고 있잖아.)

*b. 삼춘아, 느네 어명이 늘 불렀시네.

*c. 느야, 느네 어명이 늘 불렀시네.

(62a)는 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으나 (62b)와 (62c)는 비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62b) { -아 }의 선행체언이 [+존

대]로, (62c) { -야 }의 선행체언이 사람 대이름씨로 각각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 -아 / -야 }는 마침법의 배품꼴(敍述形)과 들을이 높힘법(對者尊待)의 앞선 씨끝(先語末語尾; -ㅁ, -우)과는 공기되지 않는다.

먼저, 마침법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63) a. 승길아, 바닷에 가게. (승길아 바다에 가자.)
 b. 승길아, 그거 날 도라, (승길아, 그것을 나에게 달라.)
 c. 승길아, 어디 감인디? (승길아, 어디 가고 있느냐?)
 d. 승길아, 바닷엔 사람들이 엇다이. / (승길아, 바다에는 사람들이 없다. /)
 *e. 승길아, 느 학교에 간다. (승길아, 학교에 간다.)

(63a)는 꺾임꼴(請誘形)로, (63b)는 시킴꼴(命令形)로, (63c)는 물음꼴(疑問形)로, (63d)는 느낌꼴(感動形)로, (63b)는 배품꼴(敍述形)로 각각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63a), (63b), (63c), (63d)는 모두 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으나, (63e)는 비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 -아 / -야 }가 마침법의 배품꼴과는 공기될 수 없음을 뜻한다.

다음, 들을이 높힘법(對者尊待)에서의 앞선 씨끝(先語末語尾)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64) a. 어명양, 이거 어떻허민 뵈꺼 우짱? (어머니여,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까?)

*a'. 순이야, 이거 어떻게민 뵈꺼우짱?

b. 어명양, 가이 어디 갑디강? (어머니여, 그 아이 어디 갔읍니까?)

*b'. 순이야, 가이 어디 갑디강?

(64a)와 (64b)는 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으나, (64b')와 (64b')는 비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 -아 / -야 }가 앞선 씨끝 ' -ㅁ - ', ' -우 - ' 등과 걸릴 수 없기 때문이다.

6.2. { -양 }⁵⁶⁾

6.2.1. 실현 환경

본방언의 { -양 }은 표준어의 { -이여 / -여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선행체언이 [+존대]일 때 실현된다.

(65) a. 어명양, 어디 감수광? (어머니여, 어디 가고 있습니까?)

b. 언니양, 바릇참으레 안 가쿠광? (언니여, 해산물을 잡으러 안 가겠읍니까?)

(65a)와 (65b)는 { -양 }의 실현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보면 { -양 }은 선행체언의 말음에 관계없이 실현되고 있다. 이것은 { -양 }이 선행체언의 의미특성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방언의 부름자리토 { -양 }을 표준어로 옮길 때, [-존대]의 { -아 / -야 }로 옮기면 비문이 된다.

(66) a. 어명양, 어디 감수광?

56) { -양 }의 변이형태는 { -예 } 등으로 나타난다.

*a'. 어머니야, 어디 가고 있습니까?

(66a)는 본방언이고, (66a')는 (66a)를 표준어로 옮긴 것이다. 여기서 (66a)는 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으나, (66a')는 비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본방언의 부름자리토가 임자자리토와는 달리 [+높임]의 형태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

6.2.2. 의미와 통사적 특성

{ -양 }은 [+존대]의 선행체언에 첨가되는 것으로서, 들을이 높힘법(對者尊待法)의 앞선 씨끝 '－ㅅ－', '－우－' 등과 공기 관계를 맺는다.

(67) a. 아방양, 육지 잘 갓당 읍서예. (아버지여, 육지에 잘 갔다가 오십시오.)

b. 어명양, 아방이 육지 갓당 올 꺼우짱?

(67a)의 { -양 }은 앞선 씨끝 '－ㅅ－'과 걸리고 있고, (67b)의 { -양 }은 앞선 씨끝 '－우－'와 걸리고 있다. 그러므로 { -양 }은 들을이 높힘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 -양 }은 마침법의 베풀끝과는 걸리지 못한다.

(68) *a. 어명양, (어녕이) 밧디 감수다. (어머니여, 밭에 가고 있습니다.)

b. 어명양, 가이 집의 감수다. / (어머니여, 그 아이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

c. 어명양, 밧디 가게 마썸. (어머니여, 밭에 가십시오.)

d. 성님양, 재기 갓당 읍서. (형님이여, 얼른 갔다가 오십시오.)

e. 어명양, 어디 감수광? (어머니여, 어디 가고 있습니까?)

(68a)는 베픔꼴로, (68b)는 느낌꼴로, (68c)는 꺾임꼴로, (68d)는 시킴꼴로, (68e)는 꿀음꼴로 각각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68b), (68c), (68d), (69e) 등은 모두 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으나, (68a)는 비문법적인 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 一양 } 이 마침법의 베픔꼴과는 걸릴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Ⅳ . 結 論

본고는 제주도 방언 가운데 월조각(文章成分)으로서의 일정한 자리(格, Case)에 쓰이는 자리토씨의 형태 분류, 실현환경, 기능적 의미, 통사적 특성 등을 표준어와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상이점을 살펴 보았다.

1. 본방언의 자리토씨(格助詞)는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은 기본문형(基本文型)에 관여하는 입자자리토(-이/-가), 부림자리토(-을/-르)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은 기본문형에 관여하지 않는 매김자리토(-에/-이/-스), 어찌자리토(본문 참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준어]로 실현되는 것은 홀로조각(獨立成分) 형성에 관하여는 부름자리토(-아/-야, -양/-예)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본방언의 자리토씨는 그 형태가 비록 [+표준어]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높임]의 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본방언이 자리토씨에 의한 높임법이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께서}, {-께}, {-이시여/-시여} 등과 같은 형태는 본방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2. [+표준어], [-표준어], [±표준어] 등에 분류된 형태들은 자리토씨의 실현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난다. 즉 [+표준어]로 실현되는 본방언의 자리토씨는 모두 표준어의 실현환경과 일

치하고 있는데 비해, [-표준어]로 실현되는 본방언의 자리토씨는 표준어의 실현환경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것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이 된다.

<표 3> 본방언과 표준어의 자리토씨의 실현형태와 그 환경

자리토씨의 형태·환경			실 현 형 태		실 현 환 경					
자리토씨의 종류	자리토씨의 의미		표 준 어	방 언	선행채언의말음					
					자 음	모 음				
임자자리토	주	[- 높 힘]	{ -이 }	{ -이 }	+	-				
	체	[+ 높 힘]	{ -가 }	{ -가 }	-	+				
기움자리토	[기 움]		{ -께서 }	-	+	+				
			{ -이 }	{ -이 }	+	-				
추림자리토	[부 림]		{ -가 }	{ -가 }	-	+				
			{ -을 }	{ -을 }	+	-				
매김자리토	[매 김]		{ -를 }	{ -르 }	-	+				
			{ -의 }	{ -에 }	+	+				
어 찌 자 리 토	〔 처 〕	무 정 물	{ -의 }	{ -이 }	+	-				
				{ -스 }	-	+				
				{ -에 }	+	+				
				{ -예 }	-	±				
	〔 소 〕	유 정 물	{ -디 }	{ 신티/안 틱/아픽 }	{ -의 }	±	-			
					{ -게 }	-	+	+		
					{ -에게 }	+	+			
					{ -한테 }					
	〔 관 계 〕	{ -더러 }	{ -로 }	{ -레 }	+	+				
							{ -다름 }			
							{ -으로 }	{ -으로 }	+	-
							{ -로 }	{ -로 }	-	+
	〔 방 향 〕	{ -보고 }	{ -ㄹ라 }	+	+					
						{ -으로 }	{ -으로 }	+	-	
						{ -로 }	{ -로 }	-	+	
{ -방 편 }						{ -보다 }	{ -보담 }	+	+	
〔 비교 〕	[+다름]	{ -처럼 }	{ -처럼 }	+	+					
						{ -만큼 }	{ -만이 }	+	+	
						{ -같이 }	{ -ㄹ치 }	+	+	
						{ -다름 }	{ -아 }	{ -아 }	+	-
부름자리토	〔 부 림 〕	[-높 힘]	{ -야 }	{ -야 }	-	+				
			{ -이여 }	{ -양 }	+	+				
		{ -여 }	+		+					
		{ -이시여 }	-	+	-					
		{ -시여 }	-	-	+					
		[±높 힘]	{ -이시여 }	{ -시여 }	+	+				
							{ -이시여 }	{ -시여 }	-	-
		[+높 힘]	{ -이시여 }	{ -시여 }	+	+				
{ -이시여 }	{ -시여 }						-	-		

3. 본방안의 자리토씨의 의미·통사적 특성은 선행체언과 풀이씨와의
 결립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정된 선행체언과 풀이씨
 를 요구하는 { -상에 } { -마라 } 등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적 의
 미를 가진 { -신디/-안티/-아프 }, { -드레/-레 } 등을 제외
 하면, 표준어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 표 4 > 와 같이 된다.

< 표 4 > 본방안의 자리토씨의 의미·통사적 특징

통사적 특성			선행체언과의 결함여부								풀이씨와의 결립여부							
			사람 (人 間)		일사 (事)		물 (物)		곳·때		남움직씨	제작인물촉씨	음씨비이동	그림씨	잡음씨			
			높험성	낮춤성	인위성	자연성	유정물	무정물	장소성	시간성								
자리	자리의 형태	기능적 의미																
임자 자리	{-이/가}	[주 체]	±	+	+	+	+	+	+	+	+	+	+	+	+	+	+	
	{-께서}	[주 체]	+	-	-	-	-	-	-	-	-	+	+	+	±	-	-	
기움 자리	{-이/가}	[기 움]	+	+	+	+	+	+	+	+	+	-	-	-	±	+	+	
	{-을/리}	[부 림]	+	+	+	+	+	+	-	-	+	-	-	-	-	-	-	
부림 자리		[주체강조]	-	-	-	-	-	-	+	+	-	+	+	-	-	-	-	
매김 자리	{-에 }	[매 김]	+	+	+	+	+	+	±	±	-	-	-	-	-	-	-	
	{-이 }	"	-	+	-	-	-	-	-	-	-	-	-	-	-	-	-	
	{-ㅅ }	"	-	-	-	-	-	-	+	+	-	-	-	-	-	-	-	
어	{-에/예}	[처소(곳)]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되 }	"	-	-	-	-	-	-	±	-	-	-	+	+	-	-	-	
	{신디/안 티/아프}	[처 소]	+	+	-	-	+	-	-	-	-	-	+	-	-	-	-	
		[수 여]	+	+	-	-	+	-	-	-	-	+	-	-	-	-	-	
찌	{-상에}	[관 계]	±	±	-	-	-	-	-	-	-	-	-	-	±	±	-	
	{-드레/레}	[방 향]	-	-	-	-	-	+	+	-	-	+	-	-	-	-	-	
	{-드레 }	[처소(곳)]	-	-	-	-	-	-	+	+	-	+	-	-	-	-	-	
자		[처소(수여)]	+	+	-	-	-	-	-	-	-	+	-	-	-	-	-	
	{-마라 }	[화 제]	-	-	-	-	-	+	+	-	+	-	-	-	-	-	-	
		[보 고]	+	+	-	-	-	-	-	-	-	+	-	-	-	-	-	
리	{-으로 }	[경 과]	-	-	-	-	-	-	+	-	-	+	-	-	-	-	-	
		[재료·도구]	-	-	-	-	-	+	-	-	-	+	-	-	-	-	-	
		[수 단]	-	-	+	-	-	-	-	-	-	+	-	-	-	-	-	
		[자 격]	+	+	-	-	+	-	-	-	-	±	+	±	±	±	-	
리		[원 인]	-	±	+	+	±	-	-	-	±	-	+	+	+	-	-	
	{-보담 }	[견증(견증)]	+	+	+	-	+	+	+	+	+	+	+	+	±	-	-	
	{-처럼 }	[비추(비추)]	+	+	+	-	+	+	+	+	+	+	+	+	±	-	-	
	{-마치 }	[같은(같은)]	+	+	+	-	+	+	+	+	+	+	+	+	±	-	-	

통사적 특성 자리 자리토씨의 형태 기능적 의미			선행체언과의 관계								들음이높임 법과의관계		풀이씨에 따침 법과의 관계					
			사 람		일		문		곳·때									
			높 힘 성	낮 춤 성	인 위 성	자 연 성	유 정 물	무 정 물	장 소 성	시 간 성	{-배}	{-위}	마 춤	베 고 춤	느 낌 춤	물 음 춤	시 킴 춤	피 임 춤
부 림 자 리	{ -아 / 야 }	{ 부 름 }	-	+	-	-	-	-	-	-	-	-	-	-	+	+	+	+
	{ -양 }	//	+	-	-	-	-	-	-	+	+	+	-	+	+	+	+	+
	*{-이시여/시여}	//	+	-	-	-	-	-	-	+	-	-	-	+	+	+	+	+

4. 본방언의 무표지(無標識)의 통사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본방언에서의 무표지(ϕ)의 체언은 일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유표지(Casemarker)가 첨가되면 오히려 어색해지거나 [+강조]의 의미를 띠게 된다. 그래서 특별한 발화상황이 아닌 이상은 임자자리토와 부림자리토의 중출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둘째, 본방언에서 부림자리토가 생략될 때 부림말과 안긴월의 풀이씨가 더불어 생략됨으로써 표준어와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參 考 文 獻 〉

- 장근보(1976), “屬格 { -ne } 에 研究—濟州島方言 { -ne } 를 中心으로”, 「論文輯」 第8輯, 濟州: 濟州大學.
- _____ (1977), “濟州島方言의 接尾辭 研究—특히 { -ture } 를 中心으로—”, 「論文輯」 第9輯, 濟州: 濟州大學.
- _____ (1978),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對하여”, 「論文輯」 第10輯, 濟州: 濟州大學.
- 강영봉(1985), “濟州島方言의 後置詞에 관한 研究”, 國語教育論叢 第2號, 濟州: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강정희(1982), “제주방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중세국어와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어학」 11, 국어학회.
- _____ (1983), “제주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고영근(1968), “主格助詞의 한 種類에 對하여”, 「李崇寧博士 頌壽 紀念論叢」.
- _____ (1983), 「國語文法の 研究」, 서울: 탐출판사.
- 김민수(1980), 「國語文法論」, 서울: 일조각
- 김석득(1972), 「국어구조론—한국어의 형태·통사구조론 연구—」, 서울: 연세대출판부.
- 김선희(1972), “한국어 비교구문의 구문론적 연구”, 「우리말 연구」.
- 김승곤(1966), “國語助詞의 職能考”, 「國語國文學」 58-60, 國語國文學會.

- _____ (1986), “한국어 조사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제각.
- 김영희 (1973), “한국어의 격문법 연구”, 우리말 연구.
- _____ (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 제 1 집, 문법연구회.
- 김지홍 (1982), “濟州方言의 動詞句 補文 研究.”, 碩士學位論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 김태한 (1972), “變形理論에 있어서의 Case 의 機能”, 「語文學」 26, 韓國語文學會.
- _____ (1981), “주어에 대한 소고-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言語研究」 1 輯, 大邱言語學會.
- 노대규외 5인 (1987), 「국어학 서설」, 서울:정음사.
- 문순덕 (1987), “濟州島方言의 形態素 ‘-서’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大學院.
- 민현식 (1982), “現代國語의 格에 對한 研究-無標格의 定立을 爲 하여-”, 國語研究 第 49 號.
- 박민희 (1987), “한국어의 증주어문에 대한 연구-통사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병수 (1973), “On the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 in Korea”, Linguistics 100.
- 박양규 (1972), “國語 處格에 대한 研究-統合上의 特徵을 中心으로”, 國語研究 第 27 號, 國語研究會.
- _____ (1980), “主語의 省略에 대하여”, 「國語學」 9, 國語學會.
- 박영순 (1987), 「韓國語統辭論」, 서울:집문당.

- 박창해 (1964), 「한국어 구조론 연구 3」, 서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서정수 (1971), “國語의 二重主語問題—變形生成의 分析—”, 「國語國文學」 52, 國語國文學文.
- _____ (1978), 「國語構文論 研究」, 서울: 탐출판사.
- 성광수 (1968), “國語格的 變形論的 研究—構文規則과 音韻規則上的 諸問題에 對하여—”, 「韓國語學會研究」.
- _____ (1972), “國語 冠形格 構成”, 「國語國文學」 58-60.
- _____ (1974), “국어 주어 및 목적어의 重出現象에 대하여”, 「文法研究」 第1輯, 文法研究會.
- _____ (1978), “국어 격조사에 대한 검토”, 「관동어문학」 제1집, 관동대학.
- _____ (1979), 「국어 조사의 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6), 고등학교 문법.
- 성낙수 (1975a), “교육어의 ‘말입니다’, ‘요’와 제주도 방언 {massim}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제6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_____ (1975b), “濟州島方言의 統辭論的 研究”, 「국어국문학」 68•69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 _____ (1980), “濟州島方言의 間接引用文 研究”, 「論文集」 第9輯, 淸州師大.
- _____ (1984),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서울: 정음사.
- 안병희 (1966), “不安格 (Casus Indefinitus)의 定立을 위하여”, 동

아문화 6.

유창돈(1964), 「李朝國語史 研究」, 서울:이우출판사.

이기백(1972), “國語助詞의 分類에 對하여”, 「常山李在秀博士 還
歷紀念論文集」, 서울:형설출판사.

_____(1975), “國語助詞의 史的 研究”, 「어문논총」 9·10, 경
북대 문리대.

_____(1977), “格助詞의 省略에 대한 考察”, 「어문논총」 11,
경북대 문리대.

이상규(1980), “‘-을/-를’의 범주와 기능”, 「국어통사론」,
서울:진명문화사.

이상태(1975), “자리토 연구(1)”, 「語文學」 33, 韓國語文學
會.

_____(1981), “국어 매김법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3, 경북대 사범대학.

이승녕(1985),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서울:탐출판사.

이승욱(1969), “주어의 통사에 관한 고찰”, 「국문학 논집」
3, 단국대학교.

_____(1973), 「國語文法體系의 史的 研究」, 서울:일조각.

이익섭(1981), 「영동영서의 언어분화」, 서울대출판부.

_____. 임홍빈(1985), “國語文法論」, 서울:학연사.

이태영(1984), “全北方言의 格助詞 研究-完州·鎭安·任實郡을 중심
으로-”, 碩士學位論文, 全北大學校 大學院.

임홍빈(1972), “國語主題化 研究”, 「國語研究」 28.

_____(1974), “主格重出論을 찾아서”, 「文法研究」 第1輯, 文

法研究會.

_____ (1980), “ ‘을 / 를’ 助詞의 意味와 統辭”, 「韓國語學論叢」 2, 國民大學.

_____ (1981), “사이시옷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國語學」 10, 國語學會.

진성기 (1976), 「남국의 민담」, 서울; 형설출판사.

_____ (1980), 「남국의 서사시」, 서울: 정음사.

최명옥 (1980), 「경북 동해안방언 연구」, 영남대출판부.

최현배 (1986),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허웅 (1983), 「우리 옛말본」, 서울: 샘문화사.

현용준 (1980), 「濟州島巫俗資料辭典」, 서울: 신구문화사.

현평호 (1962), 「濟州島方言研究」 第1輯 資料篇, 서울: 정연사.

——·김홍식·장근보 (1974), “濟州島方言의 活用語尾에 對한 研究”, 「論文集」 第6輯, 濟州: 濟州大學.

_____ (1977), “濟州島方言의 尊待法”, 「國語國文學」 74號, 서울: 國語國文學會.

홍사만 (1986), 「國語特殊助詞論」—意味分析—, 서울: 학문사.

홍윤표 (1969), “15世紀 國語의 格研究”, 「國語研究」 第21號, 國語研究會.

_____ (1978a), “全州方言의 格研究”, 語學 5, 全北大.

_____ (1978b), “方向性 表示의 格”, 「國語學」 6, 國語學會.

Bach, E. (1964), An Introduction to Transformational Grammar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Chafe, W.L.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msky, N.(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
M. I. T. Press.
- Fillmore, C. J. (1968), " The Case for Case ",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ed. Bach & Harm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Inc. pp. 1 ~ 90.
- _____(1971), "Some Problems for Case Grammar",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The Ohio State University.
- Nilsen, D. L. F (1972), Toward a Semantic Specification of Deep Case,
The Hague, Paris : Mouton.
- _____(1973), The Instrumental Case in English, Hague, Paris, Mouton.
- Ramstedt, G. 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 Suomalais-
Ungilainen Saira.

ABSTRACT

A study of case endings on the Cheju Dialect.

— Centered on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Korean Standard Language and Cheju Dialect —

Hur, Ki Choo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h. D. Seong, Nack 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milarity an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standard Language and Cheju Dialect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groupings, the possible environments, the functional meanings, and the syntactic features of the case endings used in fixed case as sentence component.

First, The case endings of Cheju Dialect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 [+ standard], [- standard], and [± standard]. The groups of [+ standard] are the nominative case endings (-이 / -가), the supplementary case endings (-이 / -가), and the accusative case endings (-을 / -를) as the main components of basic sentence. The groups of [- standard] are the modificative case endings (-에 / -이 / -스) and the adverbial

case endings which are not the components of basic sentence. The groups of [$\pm$ standard] are the vocative case endings (--아 /아, --양 /-예) which form the independent components from the basic sentence. Although the nominative case endings of Cheju Dialect are classified into the groups of [+ standard], Cheju Dialect doesn't have the forms of [+ respect] (--께, --께서, --이 시여 /-시여) .

Second, in Cheju Dialect which is classified into [+ standard], [- standard], and [$\pm$ standard], the possible environments of [+ standard] and [- standard] have been fixed, The possible environments of the group [- standard] are the modificative case endings { --이 /-스 }, the adverbial case endings { --예 /-의 /-되 }, the endings { --상에 } and { --ㄴ라 } etc.

Third, the semantic and syntactic features of case endings of Cheju Dialect are found in the connective relation between a preceding substantive and a predicate. It is similar to Korean standard Language except the groups of { --상에 } and { --ㄴ라 } which need a limited preceding substantive and a limited predicate, and those of { --신되 /-안되 /-아피 } and { --드레 /-레 } which take the two more functions.

Finally, a substantive itself in Cheju dialect is unmarked expression. If a case ending add to a substantive, this appearance will be unnatural or [+ stress] expression. Therefore, the duplication of nominative and accusative case ending can appear under special utterance situation.

감 사 의 글

이 논문이 이뤄지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여 주신 성낙수 교수님과 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직접·간접으로 가르쳐 주신 여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수학(修學)의 기회를 주신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감님과 여러 은사님께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결실이 이뤄지기까지 기도하여 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리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조를 아끼지 않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988. 12.

허 기 추